

『傷寒論·辨脈法』에 관한 연구(2)

최중문, 김윤주, 조은경, ¹홍진우,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The study on *ShangHanLun BianMaiFa* (2)

Jong-Moon Choi, Yun-Ju Kim, Eun-Kyung Cho, ¹Jin-Woo Hong, Sang-Woo Shin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¹*Dep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BianMaiFa* chapter, which is the first chapter of *SongBon ShangHanLun*, is the scholarly description(專論) of the pulse and pathological mechanism but has not been studied and published yet. This study is about article 11-23 which is the second part of *The BianMaiFa* chapter.

We compared the original texts within the edition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nnotations of successive dynastic medical group.

The articles of *The SongBon ShangHanLun BianMaiFa* chapter 11-23 is consisted as is shown: article 11-12-13 state about a dignosis of yin-yang, deficiency-excess, fluid-humor from difference of a pulse shape and a sign of recovery from a disease, article 14 states about a prognosis of a disease according to a pulse, article 15 states about a pulse from which we predict a recovery, article 16 states about normal pulse according to season, article 17 states about ups and downs of a disease according to yin-yang of day and night, article 18 states about a location of a disease in connection with a pulse, article 19 states about a pathological mechanism of a diarrhea through a anterior tibial pulse(趺陽脈), a lesser yin pulse(少陰脈), article 20 states about a cause of disease, a symptom, a therapy about a floating and tight pulse(浮緊脈), article 21 states about a pathological mechanism of symptoms through a anterior tibial pulse(趺陽脈), article 22 states about a pulse, a pathological mechanism, symptoms caused by erroneous treatment, article 23 states about a pulse, a symptom, a therapy with internal heat.

The *BianMaiFa* chapter 11-23 discussed a diagnosis, a prognosis of a disease, understanding of pathological mechanism through pulse. And *The BianMaiFa* suggests a various use of pulse.

Key words : *ShangHanLun*, *BianMaiFa*, Pulse

I. 緒論

宋本『傷寒論』은 10卷 22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연구되는 398개 조문은 5篇부터 14篇까지를 차지하며, 그 앞으로는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痙濕喝脈證의 4개 篇이, 뒤로는 汗吐下의 可不可 8개 篇으로 되어 있다.

宋本『傷寒論』의 冒頭를 차지하는 辨脈法 篇과 平脈法 篇은 脈에 대한 專論으로 張仲景이 직접 著作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대로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 제기되고 있는 논

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辨脈法과 平脈法 모두 張仲景의 著作이라는 견해이다. 郭雍¹⁾은 『傷寒朴亡論』에서 “辨脈法과 平脈法은 모두 仲景의 本文으로 王叔和가 撰次하였으나 옛 기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였다. 둘째, 辨脈法은 張仲景으로부터 著作된 것이나 平脈法은 托名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清代 喻昌²⁾ “平脈法은 王叔和가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仲景의 글에서 大意를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기록하고 보충하여 오히려 의심되는 부분이 남아있으나, 辨脈法은 仲景이 著作한 것으로 王叔和의 견해가 덧붙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清代 魏荔彤³⁾은 “辨脈法은 仲

접수 • 2011년 9월 6일 수정 • 2011년 9월 6일 채택 • 2011년 9월 26일
교신저자 • 신상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Tel : 051-510-8463 E-mail : swshin@swshin.com

1) 郭雍, 傷寒朴亡論, 中國書庫, 1992.

2) 清 · 喻昌, 見喻嘉言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景의 原文이지만 平脈法은 仲景의 本意가 아니고 王叔和가 著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辨脈法과 平脈法 모두 張仲景의 著作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元代 王履⁴⁾은 『醫經溯洄集』 “張仲景傷寒立法考”에서 “王叔和는 辨脈法, 平脈法 및 可汗, 可下 등의 모든 篇을 增入한 것”으로, 明末 方有執⁵⁾은 『傷寒論條辨』 卷七 “辨脈法上篇第十三”에서 “모두 王叔和가 仲景의 말을 서술하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다⁶⁾.

宋本 『傷寒論』의 각 篇名인 ‘辨OO病脈證并治’는 體徵에 해당되는 脈과 症狀에 해당되는 證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脈診이 중요한 診斷法임을 알 수 있다. 辨脈法이 敦煌本 『傷寒論』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서기 1065년의 校正醫書局 이전에 존재한 書物이라 추정되며 그렇다면 辨脈法 篇이 王叔和의 著作일지라도 同時代人인 張仲景과 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고 張仲景이 著者라도 그 時代의 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著作이라는 점에서 역대로 著者 논란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辨脈法 篇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中國은 李⁷⁾의 『傷寒論』, 陳⁸⁾의 『傷寒論譯釋』에서 辨脈法 篇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고 日本에서도 大塚⁹⁾의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劉¹⁰⁾의 『現代語訳 宋本傷寒論』에서 辨脈法 篇에 대한 註釋과 해설을 담고 있으나 國內에서는 本篇에 대한 연구보고를 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宋本 『傷寒論』 「辨脈法」 篇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두 번째인 11-23조를 대상으로 諸 版本과의 교감, 時代의가들의 주석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본 연구를 위해서 時代의가들의 註釋書 22종(표 1)과 宋本, 玉函本, 脈經本, 敦煌本, 桂林本, 中國현대 2종^{7,8)}, 日本현대 2종^{9,10)}에 대해 제 판본간 원문을 비교하고 時代의가들의 주석을 분석· 비교하였다.

표 1. 참고한 時代의주석서

	醫家	生沒年度	書名	發刊年度
1	韓祇和	북송	傷寒微旨論	1086
2	龐安時	북송	傷寒總病論	1100
3	許叔微	송대	傷寒百證歌	1132
4	成無已	금대	注解傷寒論	1144
5	方有執	명대	傷寒論條辨	1593
6	王肯堂	명대	傷寒準繩	1603
7	盧之頤	명대	仲景傷寒論疏鈔金鉅	1649
8	喻嘉言	청초	醫門法律	1658
9	張璐	청초	傷寒續論	1667
10	柯琴	청초	傷寒論注	1669
11	程知	청대	傷寒經注	1669
12	程應旂	청초	傷寒論後條辨	1670
13	周揚俊	청대 (17세기중엽)	傷寒論三注	1677
14	張志聰	청대	傷寒論集注	1683
15	張錫駒	청대	傷寒論直解	1712
16	魏荔彤	청대 (17세기중엽)	傷寒論本義	1724
17	吳謙	청대	醫宗金鑑	1736
18	黃元御	청대 (1705-1758)	傷寒懸解	1748
19	沈金鰲	청대	傷寒論綱目	1774
20	王丙	청대	傷寒論注	1778
21	章楠	청말	傷寒論本旨	1835
22	周學海	(1856-1906)	辨脈平脈章句	1893

III. 本論

11. 問曰：病有戰而汗出，因得解者，何也？答曰：脈浮而緊，按之反芤，此爲本虛，故當戰而汗出也。其人本虛，是以發戰，以脈浮，故當汗出而解也。若脈浮而數，按之不芤，此人本不虛，若欲自解，但汗出耳，不發戰也。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何也”가 “何”로 되어 있고, “按”字가 모두 “案”字로 되어 있고, “芤”字가 모

3)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中醫古籍出版社, 1997.

4) 元·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張蕾, 宋臣校定本<傷寒論>의 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pp.11-17.

7)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教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8) 南京中醫藥大學編著, 傷寒論譯釋 4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95-112.

9) 大塚 敬節,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谷口直良, 1992.

10) 劉渡舟·姜元安·生島忍, 現代語訳 宋本傷寒論, 東洋學術出版社, 2000.

두 “窒”字로 되어 있고, “故當戰而汗出也”에 “也”字가 없고, “以脈浮, 故當汗出而解也”가 “其脈反浮, 故當汗出乃解”로 되어 있고, “若脈浮而數”이 “若脈浮數”로 되어 있고, “此人本不虛”가 “此人本虛”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因得解者”이 “自得解者”로 되어 있고, “脈浮而緊” 앞에 “其”字가 있고, “故當汗出而解也”에 “也”字가 없고, “此人本不虛”가 “此本不虛”로 되어 있고, “不發戰也” 앞에 “即”字가 있다. 桂林本에는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고, “以脈浮”가 “以脈浮緊”으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 병이 있는데 떨리면서 땀이 나고, 이로 인해 풀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답하기를 : 맥이浮하면서緊하고 눌러보면 오히려 扪하니, 이것은 본래 虛한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떨리면서 땀이 나오게 된다. 그 사람이 본래 虛한데, 이로 인해서 떨림이 생기게 되고, 맥이浮하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게 된다. 만약 맥이浮하면서數하고, 눌러보면 扪하지 않은데, 이것은 사람이 본래 虛하지 않은 것으로, 만약 병이 스스로 풀리고자 하면, 단지 땀이 나오고, 떨림이 생기지 않는다.

【諸家學說 比較】

“病有戰而出汗”에서 戰에 대하여 成¹¹⁾, 方¹²⁾, 王¹³⁾는 正氣와 邪氣가 다투는 것으로 만약 虛한 경우 떨림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脈浮而緊”을 成¹⁴⁾은 浮脈을 陽으로 보고 緊脈을 陰으로 보아 陰陽이 다투면 떨림이 생긴다고 하였고, 方¹⁵⁾와 周¹⁶⁾는 邪氣가 表에 있어 外寒이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魏¹⁷⁾는 弦脈으로 보았다. “脈浮而數”에 대하여 成¹⁸⁾은 浮脈과 數脈을 모두 陽이라하여 陽이 實하여 正氣와 邪氣가 다투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周¹⁹⁾는 表에 寒이 묶여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按之反扪”, “按之不扪”에서 扪脈에 대하여 王²⁰⁾는 輕重으로 취하면 있는데 중간을 취하면 비어있는 것이라 하여 虛의 판별기준으로 제시였고 대부분의 제가들도 맥이 扪하면 正氣가 虛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魏²¹⁾는 中氣의 부족으로 보았다. 周²²⁾는 浮緊而扪脈을 外寒이 심하고 眞陽이 虛浮한 것이고, 浮數不扪脈을 外寒이 묶여 있고 眞陽이 안에 울체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12. 問曰: 病有不戰而汗出解者, 何也? 答曰: 脈大而浮數, 故知不戰汗出而解也.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病有不戰而汗出解者”이 “病有不戰復不汗出而解者”로 되어 있고, “何也”가

“何”로 되어 있고, “脈大而浮數” 앞에 “其”字가 있고, “脈大而浮數”이 “脈大浮而數”으로 되어 있고, “故知不戰汗出而解也”이 “故知汗出而解”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脈大而浮數” 앞에 “其”字가 있다. 桂林本에는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 병에 떨리지 않으면서 땀이 나고 풀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답하기를 : 맥이 大하면서 浮數한데, 그러므로 떨리지 않고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을 안다.

【諸家學說 比較】

“脈大而浮數”에서 成²³⁾은 大와 浮, 數脈이 모두 陽이므로 陽만 있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하였고, 方²⁴⁾은 數脈을 熱과 陽으로 보고 虛하지 않은 상태라 하여 正氣와 邪氣가 다투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으며 魏²⁵⁾는 浮數脈에서의 數을 陽脈에 陽이 盛하고 實한 것으로 보았으며, 周²⁶⁾는 大脈을 實狀으로 보아 맥의 오고 감이 有力한 것이라 하였다.

13. 問曰: 病有不戰, 不汗出而解者, 何也? 答曰: 其脈自微, 此以曾發汗, 若吐, 若下, 若亡血, 以內無津液, 此陰陽自和, 必自愈, 故不戰, 不汗出而解也.

【校勘】

1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12)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1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1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1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3.
 16)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17)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1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19)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20)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21)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22)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2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2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25)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26)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不汗出而解者” 앞에 “復”字이 있고, “何也”가 “何”로 되어 있고, “其脈自微, 此以曾發汗”이 “其脈自微弦, 此曾以發汗”로 되어 있고, “以內無津液”가 “無津液”로 되어 있고, “此陰陽自和, 必自愈”가 “陰陽自和, 自愈”로 되어 있고, “不汗出而解也”에 “也”字이 없다. 玉函本에는 “不汗出而解者”가 “復不汗而解者”로 되어 있고, “以內無津液, 陰陽自和”가 “以內無津液, 此陰陽自和”, 로 되어 있고 “不汗出而解也”가 “不汗而解也”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 병에 떨리지 않고, 땀이 나지도 않으면서 풀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답하기를 : 그 맥이 스스로 미약한데, 이것은 일찍이 發汗시키고,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하거나, 혈을 잃게 하여, 안에 진액이 없어진 것으로, 이것은 陰陽이 스스로 조화롭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 낫는데, 그러므로 떨리지 않고, 땀이 나지도 않으면서 풀리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其脈自微”에서 脈微에 대하여, 龐²⁷⁾, 張²⁸⁾는 일찍이 汗吐下하여 진액이 없고 汗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成²⁹⁾, 方³⁰⁾은 邪氣가 미약해진 것으로 보았는데 成³¹⁾은 正氣까지도 약해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魏³²⁾는 正氣가 미약한 것이 아니라 邪氣가 물러나고 맥이 안정되어 緊弦하거나 浮數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陰陽自和”에 대하여 魏³³⁾는 陰陽의 기가 비록 미약해도 균형있게 서로 화합하는 것으로, 周³⁴⁾는 陰과 胃氣를 기르면 精神氣가 상쾌해져 병이 낫는다고 보았다. “不戰不汗出而解”에서 不汗出에 대하여 張³⁵⁾는 진액이 없으므로 땀이 나지 않는 것으로, 周³⁶⁾는 일찍이 發汗, 吐下, 亡血하여 진액이 虛하고 正氣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寒熱이 약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14. 問曰: 傷寒三日, 脈浮數而微, 病人身涼和者, 何也? 答曰: 此爲欲解也, 解以夜半^①. 脈浮而解者, 濺然汗出也. 脈數而解者, 必能食也. 脈微而解者, 必大汗出也.

【註釋】

① 解以夜半 : 병이 풀리는 시기는 夜半으로, 夜半은 陽이 생기는 시기를 뜻한다.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脈浮數而微”앞에 “其”字이 있고, “病人身涼和者”가 “人身涼和”로 되어 있고, “何也”가 “何”로 되어 있고, “此爲欲解也”에 “也”字이 없

고, “脈浮而解者”에 “脈”字이 없고, “濺然汗出也”가 “濺然而汗出”로 되어 있고, “脈數而解者”에 “脈”字이 없고, “必能食也”에 “也”字이 없고, “脈微而解者”에 “脈”字이 없고, “必大汗出也”가 “而大汗出”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脈浮數”앞에 “其”字이 있고, “涼和”앞에 “自”字이 있다. 桂林本에는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고, “浮而解者”와 “數而解者”와 “微而解者”앞에 모두 “脈”字이 없다.

【解釋】

문기를 : 상한 3일에, 맥이 浮數하면서 微한데, 병인의 몸이 서늘하고 조화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답하기를 : 이것은 병이 풀리려고 하는 것으로, 풀리는 시기는 夜半이다. 맥이 浮하면서 병이 풀리는 자는 땀이 조금씩 계속 나온다. 맥이 數하면서 병이 풀리는 자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맥이 微하면서 병이 풀리는 자는 반드시 크게 땀이 나온다.

【諸家學說 比較】

“傷寒三日”에 대하여 成³⁷⁾은 “陽去入陰之時”로, 張³⁸⁾는 “少陽主氣之期”로 보았다. “病人身涼和者”에서 涼和에 대하여 대부분의 제가들은 邪氣가 물러가서 병이 풀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고 魏³⁹⁾는 不熱不寒이라 표현하였다. “解以夜半”에서 夜半에 대하여 成⁴⁰⁾, 盧⁴¹⁾, 魏⁴²⁾는 子時로서 陽이 생하는 시기로 보았고, 張⁴³⁾은 陰이 다하는 시기로 이해하였다. “脈浮而解者, 濺然汗出也”에 대하여 成⁴⁴⁾은 邪氣

27) 宋·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6.

28)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4.

2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0-31.

30)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3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0-31.

32)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33)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34)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35)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4.

36)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3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38)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31-732.

39)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4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41)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錐,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42)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43)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31-732.

가 밖으로 발산되는 것으로, 張⁴⁵)는 少陽의 樞氣가 바깥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魏⁴⁶)는 正氣가 虛하지 않아 衛氣가 견고하여 汗이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章⁴⁷)은 營氣가 안에서 떨치고 衛氣가 흘러서 주리가 열린 것이라 하였다. “脈數而解者, 必能食也”에 대하여 成⁴⁸)과 魏⁴⁹)는 胃氣가 조화롭고 충분하기 때문에, 張⁵⁰)는 少陽三焦의 氣가 盛하여 三焦가 조화롭기 때문에, 章⁵¹)은 營氣에 熱이 있고 邪氣가 풀린 후에 胃가 공허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脈微而解者, 必大汗出也”에 대하여 成⁵²)은 邪氣가 미약한 것으로, 王⁵³)은 血氣가 아직 상하지 않고 正氣가 왕성하며 邪氣가 미약해진 것으로 보았고, 張⁵⁴)는 少陽의 氣가 陰으로 들어가 陽이 陰에 더해져 汗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魏⁵⁵)는 大汗出은 澌然汗出과 달리 正氣가 미약하여 衛氣가 약간 트인 것으로 보았으며 章⁵⁶)도 營氣가 약하고 衛陽이 不固하여 邪氣가 풀릴 때는 汗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15. 問曰: 脈病^①, 欲知愈未愈者, 何而別之? 答曰: 寸口, 關上, 尺中三處, 大小, 浮沈, 遲數同等, 雖有寒熱不解者, 此脈陰陽爲和平, 雖劇當愈.

【註釋】

① 脈病: ‘脈’은 진찰의 의미로 질병을 진찰함을 뜻한다.

【校勘】

脈經本에는 “脈病, 欲知愈未愈者”가 “假令病人欲差, 脈而知愈”로 되어 있고, “何而別之”가 “何以別之”로 되어 있고,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고, “寸口, 關上, 尺中三處”가 “寸關尺”으로 되어 있고, “大小, 浮沈, 遲數同等”이 “大小遲疾浮沈同等”으로 되어 있고, “和平”이 “平復”으로 되어 있고, “雖劇當愈”가 “當自愈”로 되어 있고, 뒤에 “人病, 其寸口之脈與人迎之脈, 小大急浮沈等者, 病難已” 22자가 더 있다. 敦煌本에는 “欲知愈未愈者”가 “欲知愈不”로 되어 있고, “何而別之”가 “何以別之”로 되어 있고, “遲數同等”이 “遲疾同等”으로 되어 있고, “雖有寒熱不解者”에 “者”字가 없고, “此脈陰陽爲和平”이 “脈陰陽爲平”으로 되어 있고, “雖劇當愈”가 “當劇今愈”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欲知愈未愈者”에 “者”字가 없고, “何而別之”가 “何以別之”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何而別之”가 “何以別之”로 되어 있고,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병을 진찰하여, 병이 나올지 낫지 않을지를 알 고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는가? 답하기를:

寸口, 關上, 尺中 세 곳의, 大小, 浮沈, 遲數이 동등하면, 비록 寒熱이 풀리지 않은 자라도, 이것은 陰陽脈이 화평한 것으로, 비록 병이 극심하여도 당연히 낫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寸口, 關上, 尺中三處, 大小, 浮沈, 遲數同等”에서 同等에 대하여 成⁵⁷)과 周⁵⁸)는 正氣가 손상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로, 魏⁵⁹)는 陰陽의 過不及이 없는 상태로, 章⁶⁰)은 三焦의 昇降이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으나 沈⁶¹)은 陰陽이 편승한 病脈으로 보았다. “此脈陰陽爲和平”에 대하여 대부분의 제가들은 맥의 三處가 동등하면 신체의 陰陽이 和平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柯⁶²)는 陰陽이 조화로운 것이 아니고 純陰, 純陽의 상태에서 寒熱이 풀리지 않은 病脈으로 보았고, 沈⁶³)도 역시 純陰과 純陽으로 편승해 있는 상태로 보아 陰陽이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雖劇當愈”에 대하여 柯⁶⁴)와 沈⁶⁵)은 陰陽이 극성할 때 각각 陰陽을 和平하게 치료하라는 의미로 보았고,

4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45)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46)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4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4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49)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50)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5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5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5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4-1025.
 54)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55)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56)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5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1-32.
 58)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10-611.
 59)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4.
 6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61)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62)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
 63)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64)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
 65)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章66)은 아직 臟腑가 상하지 않은 것으로, 周67)는 正氣는 상하지 않고 邪氣가 제거되는 과정에 있어 병이 심해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6. 師曰: 立夏得洪一作:浮大脈, 是其本位. 其人病, 身體苦疼重者, 須發其汗. 若明日身不疼不重者, 不須發汗. 若汗濺濺自出者, 明日便解矣. 何以言之? 立夏脈洪大, 是其時脈, 故使然也. 四時仿此.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師曰”이 “問曰”로 되어 있고, “立夏得洪”이 “立夏得浮”로 되어 있고, “是其本位”이 “是其位”로 되어 있고, “身體苦疼重者, 須發其汗”이 “身體苦癢重者, 發其汗者”으로 되어 있고, “若明日身不疼不重者, 不須發汗”이 “明日身不疼不重痛者, 不須發其汗”으로 되어 있고, “若汗濺濺自出者”가 “汗鬲鬲自出”로 되어 있고, “明日便解矣”가 “明日解矣”으로 되어 있고, “何以言之? 立夏脈洪大, 是其時脈, 故使然也. 四時仿此.” 21자가 없다. 玉函本에는 “若汗濺濺自出者”이 “若汗濺濺然自出者”로 되어 있고, “脈洪大” 뒤에 “一本作浮大”가 있다.

【解釋】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立夏에 洪대한 맥상을 얻으면, 이것은 본래 보이는 맥상이다. 그 사람이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무거우면, 모름지기 發汗시켜야 한다. 만약 다음날 몸이 아프지 않고 무겁지도 않은 자는, 모름지기 發汗시키지 않는다. 만약 땀이 스스로 조금씩 계속 나오는 자는, 다음날 편안하게 병이 풀리게 된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하는가?立夏의 맥상은 洪大한데, 이는 그 시기의 맥상이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4계절의 맥상도 이것에 의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諸家學說 比較】

“立夏得洪大脈, 是其本位”에서 本位에 대하여 成68)은 “正氣內固”, 王69)은 “平脈”, 盧70)는 “隨時動作, 效象形容, 正位居體”, 魏71)는 “時旺之脈”, 吳72)는 “非邪脈”, 章73)은 “四時無病之本脈”이라 하였다. “身體苦疼重者”에 대하여 외부의 邪氣가 침입한 것으로 보았는 魏74)는 陰寒邪氣에 상한 것으로, 章75)은 濕熱의 邪에 表가 상한 것으로 덧붙여 설명하였다. “明日身不疼不重者”에 대하여 吳76)와 章77)은 邪氣가 땀을 따라 나가 병이 이미 풀렸으므로 發汗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汗濺濺自出者”에 대하여 魏78)는 아직 時脈인 洪大脈의 吉한 기운을 얻지 못한 것으로 다음날이 되면 풀린다고 하였으며 吳79)는 풀리는 징조가 이미 보인 것으로

로 다음날 병이 풀린다고 보았다. “四時仿此”에 대하여 王80)과 章81)은 “春弦夏洪秋毛冬石”라 하여 계절에 응하는 脈證이 있으면 모두 당연히 치료하여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17. 問曰: 凡病欲知何時得, 何時愈? 答曰: 假令夜半得病者, 明日日中愈. 日中得病者, 夜半愈, 何以言之? 日中得病, 夜半愈者, 以陽得陰則解也. 夜半得病, 明日日中愈者, 以陰得陽則解也.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問曰”이 “問”으로 되어 있고, “凡病欲知何時得, 何時愈”가 “病者何時發病”으로 되어 있고, “答曰”이 없고, “明”字는 모두 “旦”字로 되어 있고, “日中得病者”는 “日中發病”으로 되어 있고, “何以言之” 다음에 “立夏脈浮, 是其時脈, 故使然, 四時相救”가 있고, “日中得病”은 “所以言日中得”으로 되어 있고, “以陽得陰則解也”는 “陽得陰解”로 되어 있고, “夜半得病”에 “病”字가 없고, “明日日中愈者”는 “旦日日中愈者, 何以言之”로 되어 있고, “以陰得陽則解也”는 “陰得陽則解矣”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日中愈” 앞에 “明日”이 모두 없다. 桂林本에는 “何時愈” 뒤에 “何以知之”가 있고, “答曰”이 “師曰”로 되어 있다.

【解釋】

문기를 : 무릇 병을 어느 시기에 얻게 되는지, 어느 시기에 낫게 되는지 알 수 있는가? 답하기를 : 가령 夜半에 병

- 66)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 67)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10-611.
- 6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綏裝書局, 2006, p.32.
- 69)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 70)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 71)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 72)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 73)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 74)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 7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 76)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 7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 78)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 79)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 80)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 8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을 얻은 자는, 다음날 日中에 낫는다. 日中에 병을 얻은 자는, 夜半에 낫는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日中에 병을 얻고, 夜半에 낫는 것은, 陽이 陰을 얻음으로써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夜半에 병을 얻고, 다음날 日中에 낫는 것은, 陰이 陽을 얻음으로써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日中得病, 夜半愈者”에서 日中得病에 대하여 成⁸²⁾은 陽이 병을 받은 것으로, 章⁸³⁾은 陽時에 邪氣를 받은 것으로, 周⁸⁴⁾는 그 사람의 陽氣가 항성한테 陽時에 더욱 항성해져 병이 된 것으로, 吳⁸⁵⁾는 陽이 陰을 勝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夜半愈者에 대하여 成⁸⁶⁾은 陽이 不和할 때 陰을 얻으면 조화롭게 되는 것으로, 周⁸⁷⁾는 夜半은 純陰의 시기로 陽이 숨고 陰이 왕성해져 풀리는 것으로, 章⁸⁸⁾은 天地의 陰氣를 얻음으로서 조화롭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夜半得病, 明日日中愈者”에서 夜半得病에 대하여 成⁸⁹⁾은 陰이 병을 받은 것으로, 章⁹⁰⁾은 陰時에 邪氣를 받은 것으로, 周⁹¹⁾는 그 사람의 陰氣가 항성한테 陰時에 더욱 항성해져 병이 된 것으로, 吳⁹²⁾는 陰이 陽을 勝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明日日中愈者에 대하여 成⁹³⁾은 陰이 不和할 때 陽을 얻으면 조화롭게 되는 것으로, 周⁹⁴⁾는 日中은 純陽의 시기로 陰이 숨고 陽이 왕성해져 풀리는 것으로, 章⁹⁵⁾은 天地의 陽氣를 얻음으로서 조화롭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以陽得陰則解”, “以陰得陽則解”에 대하여 成⁹⁶⁾, 周⁹⁷⁾는 “用陽和陰, 用陰和陽”으로, 方⁹⁸⁾은 陰陽이 相際하고 氣血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고, 周⁹⁹⁾는 藥의 氣味를 사용하여 陰을 따라 陽을 이끌고 陽을 따라 陰을 이끌어서 회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18. 寸口脈浮爲在表, 沈爲在裏, 數爲在府, 遲爲在藏. 假令脈遲, 此爲在藏也.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浮”字, “沈”字, “數”字, “遲”字 뒤에 모두 “爲”字이 없고, “假令脈遲, 此爲在藏也”는 “令脈遲, 此爲在藏”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寸口脈” 앞에 “夫”字가 있고, “浮”字, “沈”字, “數”字, “遲”字 뒤에 모두 “爲”字가 없고, “此爲在藏也”에 “也”字가 없다. 桂林本에는 “府”字가 “腑”字로 되어 있고, “藏”字가 모두 “臟”字로 되어 있다.

【解釋】

寸口脈이 浮하면 병이 表에 있는 것이고, 沈하면 병이 裏에 있는 것이며, 數하면 병이 腑에 있는 것이고, 遲하면 병

이 臟에 있는 것이다. 가령 맥이 遲하면, 이것은 병이 臟에 있는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寸口脈”에 대하여 章¹⁰⁰⁾은 양손의 寸關尺 부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浮爲在表”에서 浮脈에 대하여 韓¹⁰¹⁾은 寸 3~4개의 무계로 누를 때 얻어지는 맥이지만 상한병이 있을 때는 누르지 않아도 쉽게 얻어질 수 있다 하였고, 또한 表에 대하여는 병이 表에 있다고 모두 陽病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許¹⁰²⁾는 表에 대하여 表實과 表虛가 있는 것으로, 柯¹⁰³⁾는 병이 表에 있으면 裏證이 있어도 表를 다스려야 한다고, 程¹⁰⁴⁾는 신체의 피부 밖을 表로 보았고, 章¹⁰⁵⁾은 병이 營衛의 表分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沈爲在裏”에서 沈에 대하여 韓¹⁰⁶⁾은 피하까지 누를 때 얻어지는 것이라 하였고, 裏에 대하여는 병이 裏에 있다고 모두 陰病은 아니

8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83)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84)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85)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8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87)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88)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8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9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91)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92)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9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94)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9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9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97)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98)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4.
 99)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1.
 10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01) 宋·韓祗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102)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1.
 103)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104)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0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06) 宋·韓祗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라고 하였다. 또 許¹⁰⁷)는裏에 대하여裏實과裏虛가 있는 것으로, 柯¹⁰⁸)는 병이裏에 있으면表證이 있어도裏를 다스려야 한다고, 程¹⁰⁹)는 신체 피부 안의 장부를裏로, 章¹¹⁰)은 병이 장부의裏分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數爲在腑”에서數에 대하여 韓¹¹¹)은 한 번 호흡에 맥이 6~7 번 뛰는 것이라 하였고, 腑에 대하여 王¹¹²)과 程¹¹³)은數脈이어도 병이臟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柯¹¹⁴)와 章¹¹⁵)은數脈과六腑는 모두陽이므로 腑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遲爲在臟”에서遲에 대하여 韓¹¹⁶)은 한 번 호흡에 맥이 3~4 번 뛰는 것이라 하였고, 臟에 대하여 王¹¹⁷)과 程¹¹⁸)은遲脈이어도 병이 腑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柯¹¹⁹)와 章¹²⁰)은遲脈과五臟은 모두陰이므로臟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19. 趺陽脈^①浮而澁, 少陰脈如經^②者, 其病在脾, 法當下利. 何以知之? 若脈浮大者, 氣實血虛也. 今趺陽脈浮而澁, 故知脾氣不足, 胃氣虛也. 以少陰脈弦而浮一作:沈才見, 此爲調脈, 故稱如經也. 若反滑而數者, 故知當尿膿也.

【註釋】

① 趺陽脈: 발등부위의 동맥으로 제 2,3지 뼈 사이에 있으며 衝陽穴부위에 해당한다.

② 少陰脈如經: “經”은 正常인 것으로 少陰脈이 정상이고 변화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少陰脈如經者”는 “少陰如經”으로 되어 있고, “若脈浮大者”에 “若”자가 없고, “氣實血虛也”에 “也”자가 없고, “今趺陽脈浮而澁”에 “今”자가 없고, “胃氣虛也”에 “胃”자가 없고, “少陰脈” 앞에 “以少陰脈弦而浮”가 “少陰脈弦而沈”로 되어 있고, “此爲調脈”에 “脈”자가 없고, “故稱如經也”에 “也”자가 없고, “若反滑而數者”가 “而反滑數者”로 되어 있고, “故知當尿膿也”가 “故知當溺膿也”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少陰脈如經者”에 “者”자가 없고, “若脈浮大者”가 “脈浮而大者”로 되어 있고, “故稱如經也”에 “也”자가 없고, “若反滑而數者”가 “而反滑數者”로 되어 있고, “故知當尿膿也”가 “故知當溺膿也”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浮”字 대신 “沈”字로 되어 있다.

【解釋】

趺陽脈이浮하면서澁하고, 少陰脈이 평상과 같은 자는, 그 병이脾에 있는 것으로, 마땅히 설사를 하게 된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만약 맥이浮大한 자는氣가

實하고血이虛한 것이다. 지금 趺陽脈이浮하면서澁한데, 그러므로脾氣가 부족하고, 胃氣가虛한 것을 안다. 少陰脈이弦하면서浮한 것이 잠시 보이면, 이것은 조화로운 맥이 된 것으로, 그러므로 평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오히려滑하면서數한 자는, 그러므로 당연히 대변에膿血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趺陽脈”에 대하여 許¹²¹), 成¹²²), 章¹²³)은 胃脈이라 하였고 龐¹²⁴)은 足陽明胃經의 衝陽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王¹²⁵)도 胃氣를 살피는 곳으로 보았다. “少陰脈”에 대하여 許¹²⁶), 成¹²⁷), 章¹²⁸)은 腎脈이라 하였고 龐¹²⁹)은 足少陰腎經의 太谿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脈浮大”에 대하여 成¹³⁰)은 浮는 氣實로, 大를 血虛로, 周¹³¹)

107)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1.

108)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109)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1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11) 宋·韓祗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112)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113)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14)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11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16) 宋·韓祗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11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118)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19)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12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21)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1.

12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123)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24) 宋·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6.

125)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126)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1.

12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128)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29) 宋·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6.

13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는 氣實血虛하여 外邪가 침입한 것으로 보았다. “今跌陽脈浮而濇, 故知脾氣不足, 胃氣虛也”에 대하여 成¹³²)과 王¹³³)는 浮하면 胃虛, 濇하면 脾寒하므로 脾胃虛寒하면 脾胃氣가 不足하여 穀이 소화되지 않고 水가 分別되지 않아 下利를 하게 되는 것으로, 周¹³⁴)는 脈浮而濇하면 氣血兩虛한 것으로 陽과 津액이 衰하여 水穀의 蒸腐가 안 된다고 보았다. “以少陰脈弦而浮一作沈才見, 此爲調脈, 故稱如經也”에 대하여 成¹³⁵), 周¹³⁶), 章¹³⁷)은 少陰脈은 腎脈인데 浮는 肺脈이고 弦은 肝脈이므로 弦浮하면 子母相生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黃¹³⁸)은 少陰脈이 弦浮하면 水가 木을 生하지 못하고 木이 水에 鬱結되어 少陰이 조화롭지 못한 맥이 된다고 보았다. 張¹³⁹)는 비록 少陰證이 보이더라도 少陰病의 脈인 沈遲脈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인 것이라 하였다. 如經에 대하여 章¹⁴⁰)과 周¹⁴¹)는 腎에 병이 없는 상태라 하였다. “若反滑而數者, 故知當尿膿也”에 대하여 成¹⁴²), 周¹⁴³), 章¹⁴⁴), 周¹⁴⁵)는 下焦에 熱邪가 있는 것으로, 黃¹⁴⁶)은 木이 鬱滯되고 下熱이 생겨 陰이 상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20. 寸口脈浮而緊, 浮則爲風, 緊則爲寒. 風則傷衛, 寒則傷榮. 榮衛俱病, 骨節煩疼, 當發其汗也.

【校勘】

脈經本에는 “寸口脈浮而緊”이 “脈浮而緊”으로 되어 있고, “當發其汗也”가 “可發其汗”으로 되어 있고, 뒤에 “宜麻黃湯” 4자가 더 있다. 敦煌本에는 “風”字, “寒”字 뒤의 “則”字가 “卽”字로 되어 있고, “當發其汗也”에 “也”字가 없다. 玉函本에는 “則”字가 모두 “卽”字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寸口脈浮而緊”에 “而”字가 없다.

【解釋】

寸口脈이 浮하면서 緊한데, 浮하면 風에 감수된 것이고, 緊하면 寒에 감수된 것이다. 風에 감수되면, 衛를 상하게 되고, 寒에 감수되면 營을 상하게 된다. 營과 衛에 모두 병이 있으면, 골절이 煩疼하여, 마땅히 發汗시켜야 한다.

【諸家學說 比較】

“浮則爲風, 緊則爲寒”에 대하여 王¹⁴⁷)과 程¹⁴⁸)은 風氣가 위쪽을 향해 흐르는 기운이 있어 風邪에 감수되면 浮脈을 얻게 되고, 寒氣는 수렴하고 수축하는 기운이 있어 寒邪에 감수되면 緊脈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風則傷衛”에 대하여 成¹⁴⁹)과 程¹⁵⁰)은 風은 陽邪로서 陽에 속하는 衛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張¹⁵¹)는 風이 초기에는 衛를 상하게 하지만 반드시 衛만 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寒則傷榮”에 대하여 成¹⁵²)과 程¹⁵³)은 寒은 陰邪로서 陰에 속

하는 榮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張¹⁵⁴)는 寒이 초기에는 榮을 상하게 하지만 반드시 榮만 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榮衛俱病, 骨節煩疼, 當發其汗”에 대하여 成¹⁵⁵)과 程¹⁵⁶)은 衛가 風에 상하면 熱이 나고 榮이 寒에 상하면 통증이 있으므로 榮衛가 모두 상하면 골절이 煩疼하여 땀을 통해 邪氣를 쫓는다고 보았으며, 王¹⁵⁷)은 골절은 榮과 衛가 통행하는 곳으로 風과 寒이 함께 있으면 熱과 통증이 있는데 땀을 내면 榮熱이 따라 나오고 榮衛가 조화롭게 된다고 하였다.

21. 跌陽脈遲而緩, 胃氣如經也. 跌陽脈浮而數, 浮則傷胃,

131)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3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13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5.
 134)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3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136)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3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38) 清·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438.
 139) 清·張璐, 傷寒續論:張璐言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8.
 14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41)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1.
 14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143)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44)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45)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1.
 146) 清·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8.
 14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48)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4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150)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51)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75-176.
 15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153)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54)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75-176.
 15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156)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57) 清·王丙, 傷寒論注, 陸懋修:世補悅醫書后集, 校正王業莊傷寒論注, 1778.

數則動脾, 此非本病, 醫特下之所爲也. 榮衛內陷, 其數先微, 脈反但浮, 其人必大便鞭, 氣噫而除. 何以言之? 本以數脈動脾, 其數先微, 故知脾氣不治, 大便鞭, 氣噫而除^①. 今脈反浮, 其數改微, 邪氣獨留, 心中則饑, 邪熱不殺穀^②, 潮熱發渴, 數脈當遲緩, 脈因前後度數如法, 病者則饑. 數脈不時, 則生惡瘡也.

【註釋】

- ① 氣噫而除 : 트림 후 바로 상쾌하고 편안해짐을 뜻한다.
 ② 邪熱不殺穀 : ‘熱’은 본래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심한 열을 뜻하고, ‘殺’은 소화를 뜻한다.

【校勘】

脈經本에는 본 조문이 없다.
 敦煌本에는 “胃氣如經也”과 “醫特下之所爲也”에 “也”자가 없고, “其人必大便鞭”이 “其人必堅”으로 되어 있고, “本以數脈動脾”이 “本數脈動脾”으로 되어 있고, “故知脾氣不治”가 “故知脾氣而治”로 되어 있고, “大便鞭”이 “大便而堅”으로 되어 있고, “今脈反浮, 其數改微”이 “浮脈反微數”으로 되어 있고, “邪氣獨留”에 “邪”자가 없고, “邪熱不殺穀”이 “耶熱殺穀”으로 되어 있고, “潮熱發渴”이 “朝暮發渴”으로 되어 있고, “脈因前後度數如法”이 “脈因前後度數如前”으로 되어 있고, “病者則饑”이 “病者則肥”로 되어 있고, “則生惡瘡也”에 “也”자가 없다. 玉函本에는 “本以數脈動脾”가 “脾脈本緩, 今數脈動脾”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氣噫而除”가 “氣噫不除”로 되어 있고, “大便鞭”이 “大便必鞭”으로 되어 있고, “脈因前後度數如法”이 없다.

【解釋】

趺陽脈이 遲하면서 緩한 것은, 胃氣가 정상과 같은 것이다. 趺陽脈이 浮하면서 數한데, 浮하면 胃를 傷한 것이고 數하면 脾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있던 병이 아니고, 의사가 특별히 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병이 된 것이다. 營氣와 衛氣가 內陷하고, 數脈이 먼저 미약해지며, 맥이 오히려 단지 浮하기만한데, 그 사람은 반드시 대변이 단단하게 굳고, 트림을 하면서 제거된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본래 數脈은 脾를 움직이는 것으로, 그 數脈이 먼저 미약해졌으므로, 脾氣가 치료되지 않은 것을 알고, 대변이 단단하게 굳고, 트림을 하면서 제거된다. 지금 맥이 도리어 浮하고, 그 數脈이 미약하게 변하면, 邪氣가 홀로 남아있는 것이고, 心中에 배고픔을 느낀다. 邪熱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潮熱과 갈증을 유발시키는데, 數脈이 遲緩脈이 되고, 맥의 前後 횡수가 법도에 맞으면, 환자는 배고픔을 느낀다. 數脈이 계속 변하지 않으면, 惡瘡이 생긴다.

【諸家學說 比較】

“趺陽脈遲而緩, 胃氣如經”에 대하여 대부분의 제가들은 趺陽脈은 脾胃를 살피는 맥으로 遲緩한 맥상을 보이는 것이 정상으로 胃氣에 병이 없는 상태라 하였다. “趺陽脈浮而數, 浮則傷胃, 數則動脾”에 대하여 王¹⁵⁸), 程¹⁵⁹), 周¹⁶⁰), 章¹⁶¹)은 誤下로 인하여 胃가 상하면 氣虛하게 되어 浮한 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또한 程¹⁶²)와 周¹⁶³)는 脾가 상하면 陰虛하게 되어 津액이 손상되고 數한 맥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本以數脈動脾, 其數先微, 故知脾氣不治, 大便硬, 氣噫而除”에 대하여 成¹⁶⁴)은 脾의 邪氣가 裏로 들어가서 脾熱이 있고 津액이 건조해져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王¹⁶⁵)과 周¹⁶⁶)는 脾가 躁動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 먼저 數脈이 미약해지고 脾氣가 치료되지 않아 津액이 적어져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程¹⁶⁷)과 吳¹⁶⁸)는 脾가 쇠약해져서 運化작용이 안 되어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氣噫而除”에 대하여 成¹⁶⁹), 王¹⁷⁰), 程¹⁷¹)는 脾에 병이 있으면 트림이 잘 나오고 트림을 하면 壅滯되어 있던 邪氣가 제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脈反浮, 其數改微, 邪氣獨留”에 대하여 成¹⁷²)은 邪氣가 脾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王¹⁷³), 程¹⁷⁴), 周¹⁷⁵) 吳¹⁷⁶)는 邪氣가 胃에 있는 것으로, 章¹⁷⁷)은 營衛에 邪氣가 內陷하여 脾胃氣가 衰한 것으로 보았고, “心中則饑, 邪熱不殺穀, 潮熱發渴”에 대하여

- 158)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59)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60)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6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62)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63)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6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65)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66)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67)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68)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16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70)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71)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7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7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74)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75)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76)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17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成¹⁷⁸)은 脾氣가 치료되지 않아 소화시키지 못하고 脾가 熱燥한 것으로, 王¹⁷⁹)은 脾의 運化가 안 되어 胃熱이 높아지는 것으로, 章¹⁸⁰)은 脾胃氣가 衰하고 邪氣가 陽明經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數脈當遲緩, 脈因前後度數如法, 病者則饑”에 대하여 王¹⁸¹)은 數脈이 遲緩해지면 병이 물러난 후와 발병 전의 맥박수와 같이 정상이 되는 것으로, 吳¹⁸²)는 의사가 전후이치에 맞게 치료하여 맥이 정상으로 된 것으로, 章¹⁸³)은 遲緩脈은 陽明實熱의 맥으로서 전후의 맥박수에 차이가 없으면 胃氣가 정상인 것으로 보았다. “數脈不時, 則生惡瘡”에 대하여 成¹⁸⁴)과 程¹⁸⁵)은 邪氣가 裏로 전해지지 않고 榮衛의 사이에 鬱滯되고 肌肉으로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成¹⁸⁶)은 “數脈不時”를 數脈이 微하게 변하였다가 다시 不微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王¹⁸⁷)은 脾가 肌肉을 주관하는데 脾氣가 끊임없이 躁動하는 것으로, 周¹⁸⁸)와 章¹⁸⁹)은 邪熱이 내부에 축적된 것으로, 吳¹⁹⁰)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數脈이 물러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2. 師曰: 病人脈微而澁者, 此爲醫所病也. 大發其汗, 又數大下之, 其人亡血, 病當惡寒, 後乃發熱, 無休止時. 夏月盛熱, 欲著復衣, 冬月盛寒, 欲裸其身, 所以然者, 陽微則惡寒, 陰弱則發熱. 此醫發其汗, 使陽氣微, 又大下之, 令陰氣弱. 五月之時, 陽氣在表, 胃中虛冷, 以陽氣內微, 不能勝冷, 故欲著復衣. 十一月之時, 陽氣在裏, 胃中煩熱, 以陰氣內弱, 不能勝熱, 故欲裸其身. 又陰脈遲澁, 故知亡血也.

【校勘】

脈經本에는 “後乃發熱”이 “而發熱”로 되어 있고, “夏月盛熱”과 “冬月盛寒”뒤에 “而”字가 있고, “欲”字는 모두 “與”字로 되어 있고, “裸其” 뒤에 “身”字는 모두 “體”字로 되어 있고, “則”字는 모두 “卽”字로 되어 있고, “此醫發其汗”은 “故發其汗”으로 되어 있다. 敦煌本에는 “病人脈微而澁者”이 “一日脉一病人, 其脉微而澁者”로 되어 있고, “又數大下之”가 “若數大下之”로 되어 있고, “其人亡血”이 “若其人亡血”로 되어 있고, “後乃發熱”이 “而發熱”로 되어 있고, “夏月盛熱”이 “五月盛熱”로 되어 있고, “欲裸其身”이 “欲裸出身”으로 되어 있고, “則”字가 모두 “卽”字로 되어 있고, “此醫發其汗”이 “醫數發汗”으로 되어 있고, “以陽氣內微, 不能勝冷”가 “陽微不能勝之”로 되어 있고, “故欲著復衣”이 “故欲著衣”로 되어 있고, “十一月之時”가 “十月之時”로 되어 있고, “以陰氣內弱”이 “陰氣弱”으로 되어 있고, “不能勝熱”이 “不能勝之”로 되어 있고, “故欲裸其身”이 “故欲裸身”으로 되어 있고, “又陰脈遲澁”이 “又陰脈復遲澁”으로 되어 있고, “故知亡血也”에 “也”

字가 없다. 玉函本에는 “後乃發熱”이 “而發熱”로 되어 있고, “夏月盛熱”와 “冬月盛寒” 뒤에 “而”字가 있고, “身”字는 모두 “體”字로 되어 있고, “則”字가 모두 “卽”字로 되어 있고, “此醫發其汗”에 “此”字가 없고, “以陽氣內微”가 “內以陽微”로 되어 있고, “以陰氣內弱”이 “內以陰弱”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欲著復衣”가 “欲着復衣”로 되어 있다.

【解釋】

스승이 말씀하시길 : 病人의 맥이 微하면서 澁한데, 이것은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여 병이 생긴 것이다. 크게 發汗시키고 또한 자주 크게 설사를 하게 하여, 그 사람이 血을 잃게 된 것으로, 병은 마땅히 오한이 있고, 후에는 발열을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 여름철에 熱이 盛한데, 옷을 거둬 입으려 하고, 겨울철에 寒이 盛한데,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은, 陽氣가 미미하면 오한하고, 陰氣가 약하면, 발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사가 잘못 發汗시켜서, 陽氣가 미미해진 것이고, 또 크게 설사를 하게 하여, 陰氣가 약해진 것이다. 5월의 시기에는, 陽氣가 表에 있고, 胃中이 虛冷해지므로, 陽氣가 안에서 미미해져, 冷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거둬 입으려 한다. 11월의 시기에는, 陽氣가 裏에 있고, 胃中이 煩熱해지므로, 陰氣가 안에서 약하여, 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陰脈이 遲澁하면, 고로 亡血하는 것을 알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病人脈微而澁者, 此爲醫所病也”에 대하여 成¹⁹¹), 王¹⁹²),

17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79)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80)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81)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82)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183)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8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85)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18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18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188)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189)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90)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19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5-36.
 192)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盧¹⁹³), 魏¹⁹⁴), 吳¹⁹⁵)는 脈微는 誤汗으로 陽氣가 상한 것이고 脈澁은 誤下로 陰血이 상한 것인데 陽氣가 미약해져서 오한하게 되고 陰氣가 미약해져서 발열하게 된다 하였고, 程¹⁹⁶)는 臟의 陰氣와 陽氣가 약해진 것으로 보았으며, 章¹⁹⁷)은 胃陽과 脾陰이 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惝과 설사를 하였는데 “其人亡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王¹⁹⁸)은 下利로 亡陰하면 당연히 亡血한 것이고 惝도 血의 종류이므로 亡血만을 언급했다고 하였고, 魏¹⁹⁹)는 血은 形체가 있는데 기는 형체가 없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亡血만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陰陽 모두 상한 것이라 하였다. “夏月盛熱, 欲著復衣”에 대하여 王²⁰⁰), 盧²⁰¹), 魏²⁰²), 吳²⁰³)는 여름에 몸 안의 陽氣가 미약해지고 胃中이 虛冷해져서 오한이 생긴다는 조문의 병리기전을 따랐으나, 程²⁰⁴)는 熱이 극성할 때 일시적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章²⁰⁵)은 天人相應의 원리로서 여름철에 우물 안이 오히려 차가운 것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冬月盛寒, 欲裸其身”에 대하여 王²⁰⁶), 盧²⁰⁷), 魏²⁰⁸), 吳²⁰⁹)는 겨울에 몸 안의 陰氣가 미약해지고 胃中이 煩熱해져서 발열이 생긴다는 조문의 병리기전을 따랐으나, 程²¹⁰)는 寒이 극성할 때 일시적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章²¹¹)은 天人相應의 원리로서 겨울철에 우물 안이 오히려 따뜻한 것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陰脈遲澁, 故知亡血”에 대하여 成²¹²)은 陽脈으로 기를 살피고 陰脈으로 血을 살피는데 遲澁脈이면 榮血이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

23. 脈浮而大, 心下反鞭, 有熱, 屬藏^①者, 攻之^②, 不令發汗. 屬府^③者, 不令洩數, 洩數則大便鞭. 汗多則熱愈, 汗少則便難, 脈遲尙未可攻.

【註釋】

① 屬藏 : 병이 裏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病邪가 裏에 깊어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五臟에 실제로 병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屬府 : 邪熱이 치성함을 뜻한다. 古人들은 胃에 있는 大熱이 불일정하게 되어 腸에 燥屎가 있게 된다고 보았다.

【校勘】

脈經本에는 “心下反鞭”이 “心下反堅”으로 되어 있고, “屬藏”와 “屬腑” 뒤에 “者”字가 없고, “不令洩數, 洩數則大便鞭”이 “洩數則堅”으로 되어 있고, “汗多則熱愈”가 “汗多即愈”로 되어 있고, “汗少則便難”는 “汗少便難”로 되어 있다. 敦煌本에는 “心下反鞭”이 “心下反堅”으로 되어 있고, “屬藏”와 “屬腑” 뒤에 “者”字가 없고, “不令發汗”이 “不令微汗”으로 되어

있고, “不令洩數, 洩數則大便鞭”이 “復數即堅”으로 되어 있고, “汗多則熱愈”가 “汗多即愈”로 되어 있고, “汗少則便難”가 “少汗復難”으로 되어 있고, “脈遲尙未可攻”이 “遲尙未可取”로 되어 있다.

玉函本에는 “鞭”字가 모두 “堅”字로 되어 있고, “汗少則便難”는 “汗少即便難”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脈浮而大, 心下反鞭, 有熱”이 “寸口脈浮而大, 有熱”, “心下反鞭”으로 되어 있고, “藏”字가 “臟”字로 되어 있고, “府”字가 “腑”字로 되어 있고, “汗多則熱愈”이 “汗多則熱甚”으로 되어 있고, “汗少則便難”이 없고, “脈遲尙未可攻”이 “脈遲者尙未可攻也”로 되어 있다.

【解釋】

맥이 浮하면서 大하고, 心下가 도리어 단단하며, 熱이 臟에 있는 자는, 攻下法을 사용하고, 發汗시켜서는 안 된다. 腑에 있는 자는, 소변을 자주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소변이 자주 나가면 대변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惝이 많이 나오면 熱이 물러나 병이 낫게 되고, 惝이 적게 나오면, 대변을 보기 힘들게 된다. 遲脈이 보이면 아직 下法을 사용할 수 없다.

【諸家學說 比較】

“脈浮而大”에 대하여 成²¹³), 王²¹⁴), 張²¹⁵), 張²¹⁶)는 邪

1999, pp.1026-1027.

- 193)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194)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40-41.
 195)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196) 清·程應旆, 傷寒論後條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0, p.315.
 19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198)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6-1027.
 199)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40-41.
 200)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6-1027.
 201)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202)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40-41.
 203)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204) 清·程應旆, 傷寒論後條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0, p.315.
 20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06)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6-1027.
 207)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208)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40-41.
 209)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 pp.181-189.
 210) 清·程應旆, 傷寒論後條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0, p.315.
 21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1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6.
 21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

氣가 表에 있는 것으로, 黃²¹⁷)은 太陽陽明의 맥으로, 周²¹⁸)는 表實裏虛로 보았으며 “心下反鞭”에 대하여 成²¹⁹)과 周²²⁰)는 熱이 결취된 것으로, 王²²¹), 張²²²)은 邪氣가 裏로 들어간 것으로, 張²²³)는 太陽의 氣가 가슴에 맺혀 있는 것으로, 黃²²⁴)은 陽明의 府에 邪氣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屬藏者, 攻之, 不令發汗”에 대하여 成²²⁵)은 虛寒이 없고 裏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王²²⁶)는 宿屎가 臟에 있는 것으로 보아 攻下를 시켜 內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張²²⁷)과 張²²⁸)은 心의 熱을 제거하기 위해 攻下시키고 心의 水를 잃지 않기 위해 發汗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周²²⁹)는 氣分에 無形의 병이 있는 것으로 攻은 清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發汗시키면 上下焦가 虛冷해진다고 하였다. “屬府者, 不令洩數. 洩數則大便鞭”에 대하여 成²³⁰)은 다른 裏證은 없고 表證만 있는 것으로 우선 解表해야 한다고 하였고, 方²³¹)은 胃가 實한 것으로, 張²³²)과 張²³³)은 膀胱에 熱이 있는 것으로, 周²³⁴)는 腸胃에 有形의 병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대부분의 제가들은 소변을 자주 내보내면 津액을 손상시켜 대변이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였다. “汗多則熱愈”에 대하여 成²³⁵)은 邪氣가 제거되어, 張²³⁶)는 水津이 사망으로 퍼져 熱이 낮는 것으로 보았으나, 王²³⁷), 黃²³⁸), 周²³⁹)는 津액과 營이 손상되어 熱이 더욱 심해진다고 설명하였다. “汗少則便難”에 대하여 成²⁴⁰)과 王²⁴¹)은 邪熱이 아직 제거되지 않고 津액이 손상된 것으로, 張²⁴²)는 津액이 퍼지지 못한 것으로, 黃²⁴³)은 熱이 鬱滯된 것으로 보았다. “脈遲尙未可攻”에 대하여 成²⁴⁴), 黃²⁴⁵), 周²⁴⁶)는 裏氣와 內熱이 아직 實하지 않은 것으로, 王²⁴⁷)은 腎虛하여 腎氣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급하게 攻下法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IV. 考察

11조에서는 병이 있는데 몸이 떨리고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는 이유에 대하여 맥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문에서 ‘戰’字가 사용되었는데 이 글자는 사전적으로 ‘싸우다’와 ‘떨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조문 전체적으로 볼 때 ‘戰’字를 “떨다”로 본다면 “病有戰而汗出”은 “병이 있는데 떨리면서 땀이 난다”로 해석되었지만 ‘戰’字를 “正氣와 邪氣가 싸우다”로 본다면 “병이 있는데 正氣와 邪氣가 싸워 땀이 난다”로 해석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方²⁴⁸)의 주석에서 “戰, 邪爭也”라 하였고 成²⁴⁹), 王²⁵⁰)의 주석에서

書局, 2006, p.37.

214) 明 · 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215) 清 ·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4.

216)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17) 清 · 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5.

218) 清 · 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219)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20) 清 · 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221) 明 · 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222)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23) 清 ·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4.

224) 清 · 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5.

225)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26) 明 · 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227) 清 ·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4.

228)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29) 清 · 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230)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31) 明 · 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p.175-176.

232) 清 ·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4.

233)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34) 清 · 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235)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36)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37) 明 · 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238) 清 · 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5.

239) 清 · 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240)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41) 明 · 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242) 清 ·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243) 清 · 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5.

244) 金 · 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7.

245) 清 · 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도 “邪與正爭”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제가들의 주석에서 ‘戰’字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조문에서 ‘戰’字를 中意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正氣와 邪氣가 싸우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 결과 몸이 떨리게 되는 것으로 보아 ‘戰’字에 원인과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조문에서 맥의 차이에 따라 병이 풀리는 형태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按之反扞, 此爲本虛”과 “按之不扞, 此人本不虛”에서 알 수 있듯이 扞脈을 통해 그 사람이 虛한지 不虛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王²⁵¹)은 扞脈을 “扞乃草之有孔者, 正如臥葱管於皮中, 輕取重取皆有, 而中取則無也”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虛와 不虛의 판단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扞脈은 浮數脈과 함께 나타나고 不扞脈은 浮數脈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맥들이 나타나는 것과 扞脈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成²⁵²)의 주석을 보면 浮脈과 數脈은 각각 陽脈과 陰脈이 되는데 陰陽이 만나서 싸우고 正氣와 邪氣가 서로 다투게 된다. 반면 浮脈과 數脈은 모두 陽脈이 되는데 陰陽이 만나서 싸우거나 正氣와 邪氣의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즉, 虛한 경우 正氣와 邪氣가 만나서 싸우기 쉽게 되는데 扞脈이 나타나는 것은 虛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므로 陰陽脈이 나타나서 다툼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한론에서 浮脈은 邪氣가 表에 있는 것으로 본다. 方²⁵³)도 역시 脈浮한 것을 邪氣가 外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때 正氣가 싸워 이기게 되면 邪氣가 흩어져 땀이 나고 병이 풀린다고 하였다. 한편, 周²⁵⁴)는 浮數脈과 扞脈이 나타나는 것을 外寒이 심하고 내부가 陽虛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는데 治法으로 扶陽生津시켜서 邪氣를 밖으로 내보낼 것을 제시하였다.

12조에서는 11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11조에서 浮數脈이 보이면서 扞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虛한 상태가 아니므로 陰陽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몸이 떨리지 않고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린다고 하였다. 12조에서도 역시 몸이 떨리지 않고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는 경우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11조에서와 같이 맥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본 조문에서는 “脈大而浮數”이라는 맥을 제시하였는데 앞 조문에서처럼 浮數脈이 나타나는 것은 같으나 不扞脈 대신 大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가들은 앞선 조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본 조문을 설명하고 있다. 成²⁵⁵)은 “脈大而浮數皆陽”이므로 陰陽이 다투지 않게 되어 결국 떨리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

成²⁵⁶)의 주석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方²⁵⁷) 역시 陰陽이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成²⁵⁸)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때 땀이 나는 것은 邪氣가 물러나는 것이고 떨리지 않는 것은 正氣가 이긴 것으로 보았다. 11조와 비교하여 보면 두 조문에서 모두 浮數脈이 나타나지만 11조는 扞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12조는 大脈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모두 病人의 몸 상태가 虛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주가들의 경우 大脈과 扞脈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王²⁵⁹)은 “浮而數不扞者”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周²⁶⁰)는 大를 實狀이며 ‘非大則爲扞’라고 하여 大脈과 扞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王²⁶¹)과 周²⁶²)의 견해처럼 본 조문에 한해 大를 不扞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11조와 12조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3조에서는 앞의 두 조문에서 병이 풀리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병이 풀리는 경우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앞의 두 조문에서는 병이 풀리게 될 경우 몸이 떨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땀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본 조문에서는 “病有不戰, 不汗出而解者”라 하여 몸이 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 1999, p.435.
- 246)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 24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 248)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 24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 250)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 251)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 25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 253)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 254)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 25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 25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 257)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 25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0.
- 259)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 260)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 261)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4.
- 262)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땀이 나지도 않고 병이 풀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맥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본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脈微”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脈微”가 나타날 때 그 주체는 그 사람의 몸이 되는데 이는 正氣의 虛弱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본 조문에서는 “脈微”의 주체를 인체에 국한시켜 보아서는 안 되고 邪氣의 상태까지 반영해주는 지표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成²⁶³)은 “脈微者, 邪所微也. 邪氣已微, 正氣又弱, 脈所以微”라 하여 正氣와 邪氣가 모두 微弱해진 것으로 보았고, 方²⁶⁴)은 “曾經多治, 則邪已衰, 故脈微”라 하여 “脈微”이 邪氣의 衰弱함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한편 魏²⁶⁵)는 “其脈自微也. 非正氣微, 乃邪氣退而脈得寧靜”라 하여 오로지 邪氣의 微弱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脈微”의 의미에 있어 주가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邪氣가 약해져 있는 것으로 보았고 아울러 正氣 역시 虛弱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此以曾發汗, 若吐, 若下, 若亡血, 以內無津液”은 “脈微”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주는 문구가 된다. 邪氣를 없애기 위해 發汗法, 吐法, 下法을 사용하고 亡血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邪氣가 물러가게 되어 “脈微”가 나타나고 결국 병이 풀리게 되지만 내부의 진액이 모두 고갈되어 땀을 만들 진액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구문에서 張²⁶⁶)은 앞선 두 조문과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는데 11, 12조에서는 虛한 것은 “其人本虛”로서 “自虛”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13조에서 虛한 것은 發汗吐下亡血 후 虛해진 것이므로 “非關自虛”의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此陰陽自和, 必自愈”의 이해를 도와주는 내용이 된다. 즉, 13조의 경우 發汗吐下亡血 후 邪氣는 물러났지만 내부의 진액이 없어지고 正氣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病人이 원래부터 虛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周²⁶⁷)의 설명처럼 “或靜臥以養其陰, 或得食以充其胃氣”한다면 “陰陽自和, 神清氣爽而愈矣”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몸이 떨리거나 땀이 나지 않고 병이 풀리게 된다.

14조에서는 傷寒 3일에 해당하는 시기에 병이 풀리게 될 때 맥에 따라 예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우선 “傷寒三日”에 대하여 살펴보면, 傷寒 후 특정 날짜가 언급되는 것은 상한론 조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변맥법 2조에서도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앞선 고찰에서도 밝혔듯이 정확한 날짜의推算은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成²⁶⁸)은 “傷寒三日”에 대하여 “陽去入陰之時”라 하여 陽에서 陰

으로 변하는 시기로 설명하였고 張²⁶⁹)는 “少陽主氣之期”이라 하여 樞의 특성을 갖고 있는 少陽의 시기로 설명하였는데 공통적으로 氣가 傳變하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涼和”라는 표현이 있는데 成²⁷⁰)의 주석에서 “病人身熱, 脈浮數而大, 邪氣傳也; 若身涼和, 脈浮數而微者, 則邪氣不傳而欲解也”라 하여 전체적으로 대구가 되는 문장에서 熱의 대구어로 涼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魏²⁷¹)는 “身涼意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지 몸의 한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을 볼 수 있다. “傷寒三日”과 더불어 “夜半”을 병이 풀리는 시기로 보았는데 “夜半”은 子時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成²⁷²), 盧²⁷³), 魏²⁷⁴)는 공통적으로 陽이 生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특히 盧²⁷⁵)는 陽이 生하여 陰이 응결된 것이 풀린다고 하였고 魏²⁷⁶)는 陽이 生하여 邪氣를 몰아내므로 병이 풀리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張²⁷⁷)는 “夜半”을 “陰盡之時”라 하였는데 陰陽 少長의 특성에 따라 陽이 生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므로 다른 제가와 같은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인에게 나타나는 맥에 따라 예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浮脈, 數脈, 微脈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우선 浮脈이 나타나는 경우 “濇然汗出”하게 되는데 成²⁷⁸)은 “邪從外散”으로, 張²⁷⁹)은 “少陽樞轉從外”으로 설명하였는데, 邪氣가 밖으로 흩어져 나오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魏²⁸⁰)와 章²⁸¹)은 각각 “正不虛, 汗雖出衛氣固”와

26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0-31.
 26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3.
 265)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266)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4.
 267)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26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69)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27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71)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27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73)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274)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2-33.
 275)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276)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277)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27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79)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731-732.

“營氣內振，衛氣流通”하다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大汗出”이 아니고 “濺然汗出”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數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必能食”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가들은 胃氣, 少陽三焦氣, 中氣, 營氣 등 구체적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中焦의 氣가 盛하고 조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能食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微脈이 나타나는 경우 “必大汗出”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들은 각각 설명을 달리하고 있다. 成²⁸²의 경우에는 단지 “邪氣微”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張²⁸³은 “少陽之氣內入於陰”이므로, 즉 “陽加於陰而爲汗”이므로 땀이 많이 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章²⁸⁴은 成²⁸⁵의 의견과 다르게 “營弱而衛陽不固”이라 하여 微脈의 주체를 正氣로 보았는데 “大汗出”을 설명하는 데에는 章²⁸⁶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王²⁸⁷은 13조에서는 吐, 下, 亡血로 인하여 正氣가 손상되어 땀이 나지 않았지만 14조에서는 血氣와 正氣가 손상되지 않아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고 하여 微脈의 의미를 비교하였는데, 營氣와 衛氣가 약해져 있다는 章²⁸⁸의 의견과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조에서는 병의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조의 경우처럼 맥에 따른 각각의 예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에서 언급한 개념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소지가 있는데, 여러 의가들의 경우도 본 조문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寸口，關上，尺中三處，大小，浮沈，遲數同等”의 해석 차이에 따라 전체 조문의 의미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우선 “寸關尺에 나타나는 맥(大小，浮沈，遲數)이 동등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어서 “此脈陰陽爲和平”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三部에 나타나는 동등한 맥상이 陰陽和平한 맥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成²⁸⁹의 주석에서도 “三部脈均等，卽正氣已和”라 하여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 외 程²⁹⁰은 “大小浮沈遲數同等，謂三部九候無相失也”라 하였고, 魏²⁹¹는 “其脈大小，浮沈，遲數同等，所謂和也。和而均平者，在脈則中，而無過不及在陰陽矣”라 하였으며, 吳²⁹²는 “今寸口，關上，尺中三部脈，俱見浮沈，遲數，大小同等，陰陽和平之象”라 하였고, 또한 章²⁹³은 “其寸關尺皆同等而無或大或小之異，則其三焦升降調達，而本體之陰陽和平”라 하여 成²⁹⁴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沈²⁹⁵

은 “脈三處同等”에 대하여 純陰純陽이 편승한 脈으로 病脈을 말한다고 하였고 또한 “陰陽和平”에 대하여 “非陰陽調和”라고 하여 위의 제가들과 뜻을 달리하고 있다. 柯²⁹⁶도 “陰陽和平”에 대하여 陰陽自和가 아니고 純陰純陽에 불과한 病脈으로 보아 沈²⁹⁷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雖劇當愈”에 대하여 柯²⁹⁸와 沈²⁹⁹은 陰陽이 편승한 病脈이기 때문에 陽劇이면 治陽하고 陰劇이면 治陰하여 陰陽을 조화롭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조문을 바라보는 제가들의 견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成³⁰⁰을 비롯한 다수의 제가들의 견해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맥상이 인체 陰陽의 조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에는 모든 의가들이 의견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6조에서는 계절과 맥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맥은 正氣와 邪氣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계절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

- 280)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p.33-34.
 28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8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83)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31-732.
 284)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8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1.
 286)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8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024-1025.
 288)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8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1-32.
 290)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291)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4.
 292)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293)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29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1-32.
 295)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296)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
 297)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298)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4.
 299)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0.
 30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1-32.

타나는 맥상이 다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조문에서는 여름에 洪大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28맥 중 洪脈은 “洪如洪水湧波起”이라 하여 홍수처럼 脈氣가 오는 것은 세차고 힘이 있는 맥을 말하고 大脈은 “大浮滿指沈無力”라 하여 浮取하면 洪脈과 같이 손가락에 가득하여 그 형태가 뚜렷하나 沈取하면 힘이 없는 맥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모두 정상맥에서 벗어난 병맥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여름에 洪大脈이 나타나는 것을 본 조문에서는 本位이고 時脈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成³⁰¹)은 “正氣內固”, 王³⁰²)은 “平脈”, 盧³⁰³)는 “隨時動作, 效象形容, 正位居體”, 魏³⁰⁴)는 “時旺之脈”, 吳³⁰⁵)는 “非邪脈”, 章³⁰⁶)은 “四時無病之本脈”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름에 나타나는 洪大脈은 病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맥상이 되는 것이다. “其人病身體苦疼重者, 須發其汗”에서 병인의 몸이 苦疼重한 경우 發汗法으로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병의 원인에 대하여 成³⁰⁷)은 外感邪氣가 침입한 것으로, 魏³⁰⁸)는 陰寒邪氣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장은 濕熱邪氣에 의해 表가 손상받은 것으로 보았고 공통적으로 外邪의 침입으로 보았으므로 發汗法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魏³⁰⁹), 吳³¹⁰), 章³¹¹)이 언급한 것과 같이 不疼不重者는 發汗法으로써 충분히 땀을 흘려 外邪가 모두 제거된 것이므로 다시 發汗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汗濺濺自出者 아직 병이 풀리지 않는 못하였는데, 魏³¹²)는 “此惟得時脈洪大之吉征”으로 설명하였고 吳³¹³)는 병이 풀리게 될 조짐은 이미 보였으므로 병이 풀리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본 조문에서는 계절에 따라 정상맥과 病脈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王³¹⁴)과 章³¹⁵)은 “春弦夏洪秋毛冬石”이라 하여 봄에는 弦脈 여름에는 洪脈 가을에는 毛脈 겨울에는 石脈이라는 각 계절에 해당하는 時脈을 제시하여 “四時仿此”을 보충설명해 주고 있다. 그 중 毛脈과 石脈은 빈호맥학의 28맥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毛의 가늘고 부드러운 특성과 石의 단단하고 무거운 특성을 참고하여 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7조에서는 병을 얻고 낮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天地의 陰陽변화에 따라 인체와 질병의 盛衰가 달라짐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게 되면 일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낮게 되는데 하루 동안에도 질병의 양상이 변하게 되어 아침과 저녁때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게 되고 밤낮에 따라 병의 치유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본 조문에서는 하루 중 日中과 夜半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그것을 陰陽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다. 日中은 正午로서 陽氣가 가장

극성한 시기가 되고, 夜半은 子正으로서 陰氣가 가장 극성한 시기가 된다. “日中得病者”에 대하여 제가들에 따라 조금씩 해석을 달리하였다. 成³¹⁶)은 “陽受之”라 하여 陽이 병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章³¹⁷)은 陽時에 邪氣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周³¹⁸)는 陽氣가 항성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日中은 正陽의 시기로서 더욱 陽이 항성되어 병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日中得病者가 夜半에 병이 낮게 되는 것에 대하여 조문에서 “以陽得陰則解”의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편승한 상태에 있게 될 경우 부족한 쪽을 더하여 보충해줌으로써 상호균형이 맞춰지는 원리를 적용하여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인데 成³¹⁹)과 周³²⁰)는 陰陽의 不和를 “用陽和陰, 用陰和陽”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였고, 方³²¹)은 “陰陽相際, 血氣平復”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周³²²)는 “夜半”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夜半은 純陰之候로서 陽은 숨어있고 陰은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되므로 陽氣가 항성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 “偏陰偏陽之氣”에 의하여 병이 생겼을 때 “病之愈, 亦不外乎陰陽以爲和”의 원리에 따라 병이 치유된다는 내용을 陰陽의 기본 특성으로 해석한 본 조문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

30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2.
 302)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303)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鑰,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304)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305)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306)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0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2.
 308)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309)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310)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31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12)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35.
 313)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314)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5.
 31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1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317)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18)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31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2-33.
 320)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321)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 p.174.
 322)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러나 본 조문에서는 병이 풀리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참고할 수 있겠으나 밤과 낮이라는 특정 시간은 앞선 조문들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18조에서는 寸口脈에서 나타나는 浮脈, 沈脈, 遲脈, 數脈을 구별하여 表, 裏, 臟, 腑의 病位를 진단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상한론에서는 빈호맥학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다양한 脈象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浮脈, 沈脈, 遲脈, 數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맥상으로서 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지표가 되어 준다. 본 조문에서는 浮脈은 表, 沈脈은 裏, 數脈은 腑, 遲脈은 臟에 병이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팔강변증에서 數脈은 熱을 나타내고 遲脈은 寒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辨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맥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韓³²³의 주석에서 浮脈은 “但病人兩手脈見之於皮外, 指到不及按便得者乃是浮也”, 沈脈은 “兩手脈按之至皮下得者乃是沈也”, 數脈은 “數脈者, 一息六七至是也”, 遲脈은 “遲脈者, 一息四至下三至上是也”으로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었다. “浮爲在表, 沈爲在裏”에서 表裏에 대하여 제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韓³²⁴은 三陰病에서도 병이 表에 있는 경우에는 浮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汗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浮脈에도 陰陽이 있을 수 있다하여 浮脈을 쉽게 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許³²⁵는 浮脈일 경우에도 有力과 無力에 따라 表實과 表虛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章³²⁶은 表에서도 營衛에 따라 각각 陰陽으로 구분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表裏를 단순한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고 진단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數爲在腑, 遲爲在臟”에서 遲數脈을 臟腑 病位의 지표로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제가들은 遲脈과 數脈을 각각 陰와 陽에 배속시켜 설명하고 있다. 특히 柯³²⁷는 “數爲陽, 陽主熱, ... , 然六腑爲陽, 陽脈營其腑”과 “遲爲陰, 陰主寒, ... , 然五臟爲陰, 而陰脈營其臟”이라 하여 遲數脈일 때 각각 병이 臟腑에 위치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章³²⁸도 “腑爲陽, 臟爲陰, ... , 脈數爲陽, 故爲在腑. 脈遲爲陰, 故爲在臟”라 하여 柯³²⁹와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

19조에서는 趺陽脈과 少陰脈에 나타나는 맥상을 통해 病位와 그에 따른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前 조문까지는 寸口脈에 나타나는 맥상에 대해 논하였으나, 본 조문은 발 부위에 있는 趺陽脈과 少陰脈에 나타나는 맥상을 진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趺陽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조문

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 龐³³⁰에 따르면 趺陽脈은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위로 5촌정도 되는 지점으로 足陽明胃經의 衝陽穴에 해당하는 곳이며, 少陰脈은 足內踝 뒤쪽에 근골위로 동맥이 박동하며 움푹 들어간 지점으로 足少陰腎經의 太谿穴에 해당하는 곳이다. 趺陽脈과 少陰脈에 대하여 제가들은 공통적으로 胃脈과 腎脈을 진단할 수 있는 부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許³³¹는 傷寒에 반드시 두 맥을 진찰 할 것을 언급하였다. 조문에서 “趺陽脈浮而澁, 少陰脈如經者”일 때 脾에 병이 있어 下利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때 나타나는 맥상의 의미는 寸口脈에서 나타나는 맥상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다. 寸口脈에서 浮脈은 일반적으로 外感邪氣에 의한 表證을 나타내는 맥이고 澁脈은 血虛를 나타내는 맥인 것과 달리 趺陽脈이 浮澁한 것은 脾氣不足하고 胃氣虛한 것으로 보았다. 趺陽脈은 胃經의 맥으로 中焦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맥으로 보았기 때문에 寸口脈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成³³²은 浮脈이 胃虛, 澁脈이 脾寒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하고 더불어 水濕의 분별도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下利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下利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脾에 있게 되는 것이다. 조문에서 趺陽脈의 浮澁을 설명하기 전에 “若脈浮大者, 氣實血虛也.”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浮大脈이 寸口脈에 대한 내용인지 趺陽脈과 少陰脈에 대한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寸口脈의 浮大가 氣實血虛를 나타내지는 않고, 또한 본 구문 이후 趺陽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趺陽脈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趺陽脈이 浮澁할 때의 병증과 비교하기 위해 앞서 浮大할 때

323) 宋·韓祇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324) 宋·韓祇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325)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1.

326)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27)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328)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29)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3.

330) 宋·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6.

331)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

33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의 병증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少陰病이 있으면 下利를 하게 되는데 조문에서는 少陰病에 의한 下利가 아니고 脾의 문제에 의한 下利로 보았다. 그 이유는 “少陰脈如經”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經”의 의미를 “調脈”으로 본다면, 少陰脈은 調脈이기 때문에 병이 없으므로 少陰病에 의한 下利가 아닌 脾의 병에 의한 下利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少陰脈이 弦浮한 것을 調脈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成³³³), 周³³⁴), 章³³⁵)은 水의 母인 金(浮脈)과 水의 子인 木(弦脈)이 모두 나타나 子母相生한 맥상이기 때문에 調脈이라 설명하였다. 반면, 張³³⁶)는 沈遲한 少陰病의 맥이 아니라 陽脈인 弦(少陽)과 浮(太陽)脈이 보인 것이므로 調脈이라 설명하였는데 相生관계로 설명한 제가들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少陰脈이 滑數할 때는 변에 혈이 섞여 나오게 되는데 이는 下焦 또는 腎에 熱邪가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滑數脈은 少陰失常의 맥으로 脾胃虛에 의한 下利가 아니라 少陰實에 의한 下利로 볼 수 있다.

20조에서는 寸口脈에서 浮脈과 緊脈이 나타났을 때 病因, 病理 및 治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상한론 태양병편에 따르면 浮脈은 太陽表虛證과 太陽表實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맥상이다. 만약 浮脈과 함께 緩脈이 보이면서 惡風의 증상이 있으면 表虛證(中風)에 해당하고, 浮脈과 함께 緊脈이 보이면서 惡寒의 증상이 있으면 表實證(傷寒)에 해당하게 된다. 본 조문에서는 浮脈이 나타난 것은 風에 의해 衛가 상한 것이고 緊脈이 나타난 것은 寒에 의해 榮이 상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成³³⁷), 王³³⁸), 程³³⁹)은 대동소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風은 陽邪이고 衛氣는 脈外를 흐르고 있으므로 陽이 되며, 寒은 陰邪이고 榮氣는 脈中을 흐르고 있으므로 陰이 된다고 보았다. 程³⁴⁰)이 언급한 것처럼 “陽邪從陽之類, 陰邪從陰之類”에 따라 風邪가 衛氣를 상하게 하고 寒邪가 榮氣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張³⁴¹)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風은 반드시 衛를 상하게 하고 寒은 반드시 榮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병의 초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邪氣가 榮과 衛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하여 병의 진행단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였다. “浮則爲風, 緊則爲寒”에 대하여 風邪가 침입했을 때 浮脈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風은 陽邪로서 위쪽으로 떠서 흐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浮脈이 나타난다. 반면, 寒邪가 침입했을 때 緊脈이 나타나게 되는데, 寒은 陰邪로서 수렴하고 수축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緊脈이 나타난다. “榮衛俱病, 骨節煩

疼”은 榮衛에 모두 병이 있는 것이므로 風邪와 寒邪가 모두 침입한 것이 되고 맥상은 浮緊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太陽表實證이 있을 때의 脈象에 해당하는데 骨節煩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治法으로 發汗法을 제시하였다. 成³⁴²), 王³⁴³)은 邪氣를 내쫓기 위한 治方으로 麻黃湯을 제시하였는데 상한론 35조문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에서 나타난 증상과 같다. 특히 成³⁴⁴)과 程³⁴⁵)은 衛氣에 風邪가 침입하면 熱이 생기고 榮氣에 寒邪가 침입하면 通증이 생기므로 風寒邪가 모두 침입하게 되면 骨節煩疼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王³⁴⁶)은 골절이 아픈 이유에 대해 골절은 榮氣와 衛氣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程³⁴⁷)은 風邪에 의해 衛가 상하게 되면 浮緩脈과 汗出이 나타나므로 桂枝湯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寒邪에 의해 榮이 상하게 되면 浮緊脈과 無汗이 나타나므로 麻黃湯을 사용해야 하고 榮衛가 모두 상하면 大靑龍湯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본 조문에 대해 中風과 傷寒을 변별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21조에서는 趺陽脈의 맥상과 그에 따른 脾胃의 病理 및 증상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19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趺陽脈을 진단하여 脾胃脈으로 脾氣와 胃氣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 19조에서는 “少陰脈如經”을 弦浮脈이라 하였는데, 본 조문에서는 “趺陽脈遲而緩, 胃氣如經也”라 하였고, 여기서 “經”은 “常”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趺陽脈

33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3-34.
 334)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33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36) 清·張璐, 傷寒續論:張璐言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8.
 33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338)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39)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340)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341)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75-176.
 34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34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4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34.
 345)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346) 清·王丙, 傷寒論注, 陸懋修:世補悌醫書后集, 校正王業莊傷寒論注, 1778.
 347)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을 통해脾胃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遲緩해야하는 맥이 浮數하게 되면 “浮則傷胃, 數則動脾”하여脾胃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王³⁴⁸), 周³⁴⁹), 吳³⁵⁰), 章³⁵¹) 등이脾胃의 문제를 浮數脈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그 중 章³⁵²)의 주석을 보면 “胃主通降, 傷則氣虛, 故脈浮; 脾司轉運, 動則失度, 故脈數”라 하여 浮脈과 數脈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脾胃의 문제는 본래부터 있던 병이 아니고 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正氣가 虛해진 틈을 타 邪氣가 內陷한 것으로 보았다. “本以數脈動脾, 其數先微, 故知脾氣不治”에서 脾는 陰을 주관하는데 下法이 과도하여 亡陰의 상태가 되면 脾의 躁動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므로 數脈이 미약하게 되는 것이고 脾氣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微’를 ‘微脈’으로 보는 것 보다는 數脈의 정도가 ‘微弱’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大便硬, 氣噫而除”에 대하여 諸家들은 거의 같은 견해를 보였는데, 大便이 단단한 것은 脾邪로 인해 脾衰不運하게 되고 胃虛脾熱하게 되어 津液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成³⁵³)과 王³⁵⁴)의 주석에 따르면 脾에 병이 있으면 트림이 자주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트림이 나오게 되는 것도 大便硬의 병리와 같이 脾氣不運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章³⁵⁵)은 이와 더불어 胃虛不降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成³⁵⁶)의 주석 중 “《針經》曰: 脾病善噫, 得後出餘氣, 則快然而衰”의 내용에서는 트림을 하게 되면 氣가 衰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今脈反浮, 其數改微, 邪氣獨留”에서 보듯이 결국 數脈이 미약해진 것을 통해서 脾氣가 衰한 것을 알 수 있고 浮脈이 있는 것을 통해서 邪氣만이 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王³⁵⁷)에 따르면 邪氣는 脾에 머물러 있고 胃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데 胃가 空虛하기 때문에 배고픔은 느끼게 된다. 그러나 脾의 眞火만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고 邪熱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胃能納, 脾不能化하므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도 소화는 안 되고 水穀이 不化하게 되어 胃熱이 높아지고 潮熱과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數脈當遲緩, 脈因前後度數如法, 病者則饑”에 대해서는 의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王³⁵⁸)은 “病退之後與未病之前一息四至, 度數如法”라고 하였는데 數脈이 遲緩해져서 병이 물러난 후나 발병 전과 같이 1호흡에 4번 뛰는 정도가 되는 것을 法이라 하여 맥박의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반면, 周³⁵⁹)는 “再一下之而歸遲緩, 遲緩則愈矣”라 하여 다시 한 번 下法을 사용하면 遲緩脈이 되고 병이 낫게 된다는 治法을 제시해주었고, 吳³⁶⁰)는 “醫者前後施治如

法, 而浮數之脈自當遲緩如經”라 하여 진후 이치에 맞게 치료할 것으로 보았다. 조문에서 “數脈當遲緩”라고 하였듯 數脈이 遲緩脈으로 변하는 맥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맥의 규칙적인 빠르기를 제시해준 王³⁶¹)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數脈不時, 則生惡瘡也”에서는 만약 數脈이 遲緩해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미약해 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면 邪熱은 계속 내부에 머무르게 되고 鬱滯되어 惡瘡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22조에서는 微澁脈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誤治로 인한 원인과 병리 및 그에 따른 증상을 논하고 있다. “病人脈微而澁者, 此爲醫所病也.”라 하여 病因이 微하고 澁한 맥상을 갖는 것은 의사의 誤治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 微脈은 제일 가느다란 맥으로서 일반적으로 氣血이 미약해있거나 오래된 虛證 상태일 때 나타나는 맥이고 澁脈은 精血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맥이다. 微脈이나 澁脈은 항상 誤治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氣血이 부족할 때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기서 病因은 微脈이나 澁脈이 단독으로 보인다고 보다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發汗法이나 下法을 너무 무리하게 자주 사용해서 환자가 亡血의 상태가 되어 微澁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러 諸家들의 주석을 보면 大發汗으로 인해 亡陽, 亡氣하게 되고 大下로 인해 亡陰, 亡血하게 되고 이로 인해 微澁脈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조문에서는 發汗과 下法으로 인해 단지 亡血이 된다고만 하였다. 이에 대해 王³⁶²)은 脉도 血의 일종이므로 亡血이라고만 하였고,

348)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49)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350)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35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52)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5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354)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55)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53-178.

35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綫裝書局, 2006, pp.34-35.

357)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58)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359)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360)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181-189.

361)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6.

魏³⁶³)는 혈은 형체가 있고 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亡氣를 인식할 수 없어 단지 亡血이라고만 했다는 독특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결국 亡血은 亡氣를 포함하여 陰陽이 모두 상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氣血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病當惡寒，後乃發熱，無休止時。夏月盛熱，欲著復衣，冬月盛寒，欲裸其身”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陽微則惡寒，陰弱則發熱。此醫發其汗，使陽氣微，又大下之，令陰氣弱”에서 제시한 것처럼 發汗으로 인해 陽氣가 미약해져서 오한이 발생한 것이며，下法으로 인해 陰氣가 약해져서 발열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오한발열은 내부의 陰陽이 모두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外感에 의한 오한발열과는 달리 쉬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더운 여름에 오히려 옷을 입으려 하고 추운 겨울에 옷을 벗으려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五月之時，陽氣在表，胃中虛冷，以陽氣內微，不能勝冷，故欲著復衣；十一月之時，陽氣在裏，胃中煩熱，以陰氣內弱，不能勝熱，故欲裸其身”라 하여 조문에서 이런 증상에 대한 病理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여름의 시기에 해당하는 5월에는 陽氣가 밖에 있어 陽氣內微하고 陰氣는 안에 잠복해 있어 胃中은 虛冷하므로 不能勝陰氣之冷하여 오한이 발생하고 거듭 옷을 입으려 한다. 반면 겨울의 시기에 해당하는 11월에는 陰氣가 밖에 있어 陰氣內弱하고 陽氣는 안에 잠복해 있어 胃中은 煩熱하므로 不能勝陽之熱하여 발열이 생기고 거듭 옷을 벗으려 한다. 대부분 제가들의 의견은 비슷하였으나，章³⁶⁴)은 人身의 氣가 天地와 相應한다는 관점에서 독특하게 해석하였는데 더운 5월에는 우물물이 반대로 차가운 것과 같이 陰氣가 안에 머물러 있고 추운 11월에는 우물물이 반대로 따뜻한 것과 같이 陽氣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程³⁶⁵)은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단지 한열의 세력이 극성한 경우를 극단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 하였다. “又陰脈遲澁，故知亡血也。”에 대하여 成³⁶⁶)의 주석에서 氣는 陽이므로 陽脈으로 살피고 血은 陰이므로 陰脈으로 살펴야한다고 보았다. 陰脈이 遲澁한 것은 榮血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亡血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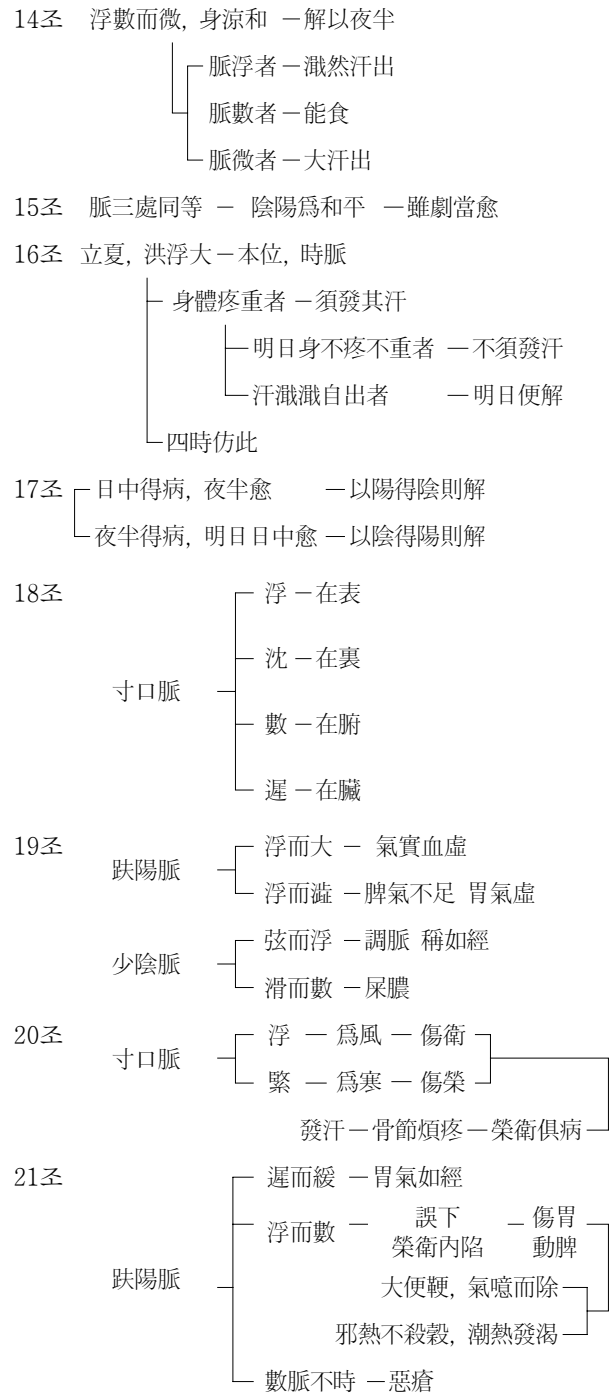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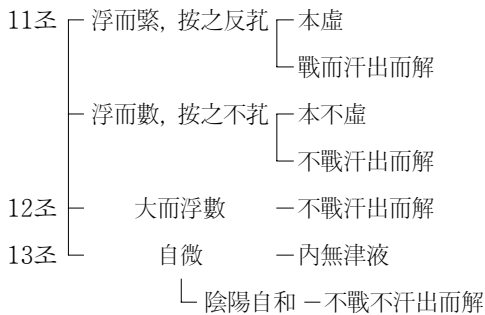
23조에서는 熱證이 있을 때 맥상과 증상에 맞는 治法을 논하면서 잘못된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예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조문에서 “脈浮而大”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寸口脈의 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반적으로 浮脈은 外邪에 감촉되어 表證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맥상이고 大脈은 三部가 모두 고르다면 무병

의 상태이지만 병을 얻고 大해졌다면 邪氣가 盛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맥상이다. “脈浮而大，心下反鞭”에서 成³⁶⁷)，張³⁶⁸)，張³⁶⁹) 등은 浮大脈에 대하여 사기가 표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대부분의 의가들은 心下가 단단해진 것은 熱이 내부에 심하게 결취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특히，黃³⁷⁰)은 浮大脈을 太陽陽明의 맥으로 보고 “心下反鞭”을 陽明의 府에 邪氣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다른 제가들과 달리 “蓋少陽之經，自胃口而行兩脅，少陽經氣侵逼陽明之府，府氣壅遏，逆而上行，礙少陽下行之路，經府鬱迫，結於胸脅，故心下痞硬”라 하여 독특한 病理로서 설명하였으나 대부분 제가들의 견해에 따라 “脈浮而大，心下反鞭”은 表證과 裏熱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有熱，屬藏者，攻之，不令發汗。屬府者，不令洩數”에서는 熱이 있는 위치에 따라 治法에 설명하였다. 조문에서 臟과 腑에 熱이 있는 경우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病位를 구별할 수 있는 진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가들은 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屬藏者”에 대하여 裏熱，結胸痞氣，宿屎在臟，屬少陰心臟，氣分無形之病이라 하였고，“屬府者”에 대하여 胃實，小便不利，屬大腸膀胱之府，腸胃有形之病 如陽明承氣證이라 하여 제가마다 각자 독특한 견해로 해석하였다. “屬藏者”일 때의 治法은 攻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攻”은 “下”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裏熱 또는 心熱을 제거시킬 수 있으나 發汗法을 사용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發汗法을 사용하지 말라 한 것은 맥상이 浮한 것을 보아 단순히 表證으로 진단하여 發汗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약 發汗法을 사용하게 된다면 津液 또는 心液을 잃어 陰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表證이 아닌 裏熱이 있을 때 적합하지 않은 治法임을 강조하였다. “屬府者”일 때의 治法에 대하여 “不令洩數，洩數則大便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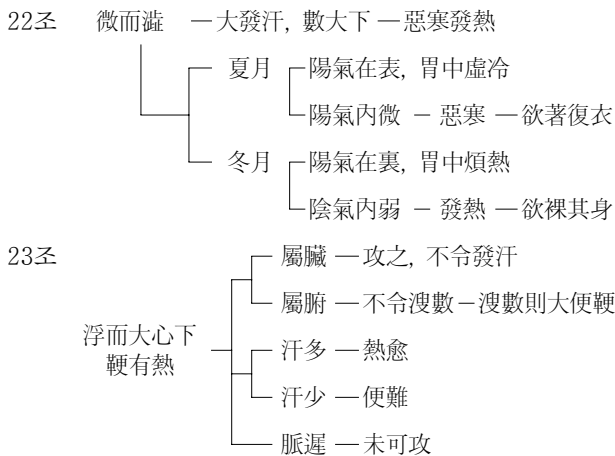
362) 明 · 王肯堂，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9，pp.1026-1027.
 363) 清 · 魏荔彤，傷寒論本義，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7，pp.40-41.
 364) 清 · 章楠，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pp.153-178.
 365) 清 · 程應旆，傷寒論後條辨，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1670，p.315.
 366) 金 · 成無己，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北京：綫裝書局，2006，pp.35-36.
 367) 金 · 成無己，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北京：綫裝書局，2006，p.37.
 368) 清 · 張志聰，張志聰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9，p.734.
 369) 清 · 張錫駒，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p.177.
 370) 清 · 黃元御，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9，p.435.

라 하였는데 利小便은 利大便과 달리 內熱은 제거하지 못하면서 發汗과 마찬가지로 진액만 손상시키게 하므로 소변이 자주 나가는 것을 주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문에서는 熱이 腑에 있을 때 적절한 治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張³⁷¹⁾와 張³⁷²⁾의 주석을 보면 熱이 방광의 府에 있는 것으로 보아 發汗法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王³⁷³⁾과 周³⁷⁴⁾ 등은 發汗하게 되면 진액이 손상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후 發汗法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거듭 강조하여 “汗多則熱愈, 汗少則便難”라 하였는데 이 문구가 “屬府者”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屬藏者”와 “屬府者”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愈’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하겠다. ‘愈’는 사전적으로 ① (남보다) 낫다, ② (병이) 낫다, ③ 고치다, ④ 유쾌하다, ⑤ 즐기다, ⑥ 근심하다, ⑦ 근심하는 모양, ⑧ 더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조문에서 만약 ‘② (병이) 낫다’의 의미로 본다면 ‘發汗法을 많이 사용했을 때 熱이 낫는다’로 해석되고 앞서 “屬藏者, 攻之, 不令發汗”과는 모순되는 내용이 된다. 그러나 ‘⑧ 더욱’의 의미로 본다면 ‘發汗法을 많이 사용했을 때 熱이 더욱 심해진다’로 해석될 수 있어 發汗法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해 黃³⁷⁵⁾은 “汗多則營消而熱愈增”라 하였고, 周³⁷⁶⁾는 “熱愈者, 熱益甚也”라 하여 명확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결국 發汗法이 과하게 되면 진액이 耗損되어 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며 發汗法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역시 진액이 손상되어 대변을 보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판단해볼 때 發汗法을 사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屬藏者”와 “屬府者”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脈遲尙未可攻”에서는 遲脈을 나타낸다면 아직 內熱未實한 상태로서, 發汗法 뿐만 아니라 攻下法에 있어서도 급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상의 『傷寒論·辨脈法』 11조에서 23조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371)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4.
 372)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77.
 373)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27.
 374)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375) 清·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5.
 376)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3.



V. 結論

宋本『傷寒論』辨脈法 篇의 두번째 부분인 11-23조에 대하여 諸 판본과 비교하고 역대의가의 註釋을 분석·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맥상의 차이를 통해 陰陽虛實과 진액의 유무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병이 풀리는 형태에 대하여 논하였다. 正氣가 虛하면 병이 풀릴 때 떨림이 생기게 되는데 芤脈을 통해 正氣의 虛한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 大脈은 正氣가 虛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맥이 浮數而大하면 떨림이 있지 않고 병이 풀리게 된다. 또한 몸의 진액을 모두 잃으면 正氣와 邪氣가 모두 미약해져 微脈이 나타나는데 陰陽自和하면 떨리거나 땀이 나지 않고 병이 풀리게 된다. (11,12,13조)

2.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맥상의 형태와 맥에 따라 달라지는 예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浮脈은 邪氣가 表에 있는 것이고 數脈은 胃氣가 강한 것이며 微脈은 正氣가 미약해져있는 것으로, 正氣가 회복되어 병이 나올 때 浮脈은 땀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數脈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微脈은 땀이 많이 나온다. 또한, 寸關尺脈의 大小, 浮沈, 遲數이 같으면 陰陽이 서로 조화로운 상태에서 만약 병이 심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 (14,15조)

3. 四時에 따라 정상맥이 다르고 天地의 陰陽변화에 따라 인체와 질병의 盛衰가 달라짐을 논하였다. 봄, 여름, 가

을, 겨울에는 각각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平脈이 있는데 平脈이 보이면 正氣가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병이 극심해지지 않고 자연히 치유될 수 있다. 日中은 陽氣가 극성한 시기이고 夜半은 陰氣가 극성한 시기인데, 天地陰陽의 조화를 얻는 시기가 되면 병이 낮게 된다. (16,17조)

4. 寸口脈, 趺陽脈, 少陰脈을 통한 病位와 病理의 진단에 대하여 논하였다. 寸口脈의 浮, 沈, 遲, 數을 구별하여 表, 裏, 臟, 腑의 病位를 진단하고, 趺陽脈으로 中焦의 病證을 진단하며 少陰脈으로 下焦의 病證을 진단할 수 있다. 趺陽脈이 浮澁하면 胃氣가 虛한 것이고 少陰脈이 浮弦하면 下焦가 정상인 상태이다. 趺陽脈이 遲緩하면 胃氣가 정상인 것이고 浮하면 胃가 상한 것이며 數하면 脾가 상한 것이다. (18, 19, 21조)

5. 風寒에 감수되거나 熱證이 있을 때의 맥상, 증상 및 치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浮緊脈은 太陽病 傷寒에 해당하는 맥으로 風邪에 감수되면 浮脈이 나타나고 寒邪에 감수되면 緊脈이 나타나는데 發汗法으로 邪氣를 내보내야 한다. 脈이 浮大한데 心下가 단단하면 邪氣가 表에서 裏로 들어가 熱이 걸춰되어 있는 것인데 下法을 사용해서 熱을 제거해야하고 發汗法이나 소변을 내보내면 진액이 손상된다. (20, 23조)

6. 誤治로 인한 맥상, 병리 및 증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誤汗으로 인하여 땀으로 陽氣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微脈이 나타나고, 誤下로 인하여 진액을 잃고 陰血이 부족해져서 澁脈이 나타나는데, 여름철에 내부의 陽氣가 미약하고 胃中이 虛冷해져 오한이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에 내부의 陰氣가 미약하고 胃中이 煩熱해져 발열이 생길 수 있다. (22조)

7. 宋本傷寒論을 중심으로 辨脈法 11조부터 23조까지 판본을 비교한 결과 脈經에는 4개의 조문이 각각 診病將差難已脈第十五, 病可發汗證第二, 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病不可下證第六에 포함되어 있고, 敦煌本傷寒論과 金匱玉函經 및 桂林古本에는 모든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판본에 따라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거나 생략된 경우가 있지만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 敦煌本傷寒論의 경우 11조에서 不虛가 虛로, 12조에서 汗出이 不汗出로, 21조에서 不治가 而治로 되어 있으며, 桂林本傷寒論의 경우 21조에서 而除가 不除로 되어 있어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8. 辨脈法 11조부터 23조에는 浮脈, 沈脈, 遲脈, 數脈, 滑脈, 澁脈, 洪脈, 微脈, 緊脈, 緩脈, 芤脈, 弦脈 등 모두 12가지의 맥상이 언급되어 있다. 16세기에 著作된 瀕湖脈學에는 27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辨脈法에는 맥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맥상의 차이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병리를 파악하는 방법과 맥진의 부위에 따른 병위의 진단방법 등을 논하여 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參考文獻

1. 郭雍. 傷寒朴亡論. 中國書庫. 1992.
2. 清·喻昌. 見喻嘉言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中醫古籍出版社. 1997.
4. 元·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張蕾. 宋臣校定本<傷寒論>的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11-7.
7. 李培生·高等醫藥院校教材. 傷寒論講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8. 南京中醫藥大學編著. 傷寒論譯釋 4版.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 95-112.
9. 大塚 敬節.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谷口直良. 1992.
10. 劉渡舟·姜元安·生島忍. 現代語訳 宋本傷寒論. 東洋學術出版社. 2000.
11. 宋·韓祇和. 傷寒微旨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 : 綫裝書局. 2006 : 3-5.
12. 宋·龐安時. 傷寒總病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155-6.
13. 宋·許叔微. 新編張仲景註解傷寒百證歌: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八冊. 北京 : 綫裝書局. 2006 : 1-3.
1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實用中醫典籍寶庫 第十七冊. 北京 : 綫裝書局. 2006 : 23-47.
1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57 : 170-9.
16. 明·王肯堂. 傷寒準繩:王肯堂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020-33.
17. 明·盧之頤. 仲景傷寒論疏鈔金錄.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49.
18. 清·喻嘉言. 醫門法律:喻嘉言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97-201.
19. 清·張璐. 傷寒續論:張璐言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559-635.
20. 清·柯琴. 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1-7.
21. 清·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69.
22. 清·程應旄. 傷寒論後條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0 : 302-25.
23. 清·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研究院圖書館藏. 1677.
24. 清·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729-37.
25. 清·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 168-80.
26. 清·魏荔彤. 傷寒論本義.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7 : 21-53.
27.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 181-9.
28. 清·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429-53.
29. 清·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05-875.
30. 清·王丙. 傷寒論注. 陸懋修:世補悌醫書后集. 校正王業莊傷寒論注. 1778.
31. 清·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 153-78.
32. 清·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01-18.
33. 明·趙開美本. 傷寒論. 燎原書店. 1988.
34. 清·陳世傑本. 金匱玉函經. 燎原書店. 1988.
35. 王淑和. 脈經. 北京 : 人民軍醫出版社. 2005.
36. 丛春雨. 敦煌中醫藥全書. 中醫古籍出版社. 1994.
37.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醫聖堂. 2004.